

청년생활

1

1964



《조국 진군》

오오 압록강! 압록강! …
이 나라의 빨찌산들이
해방전의 불'길을 뿌리며
그대를 넘어 왔다—
애국의 심장을 태워 앞길 밝히며
의지를 갈아 창검으로 높이 들고
이 나라의 렬사들이 조국 땅에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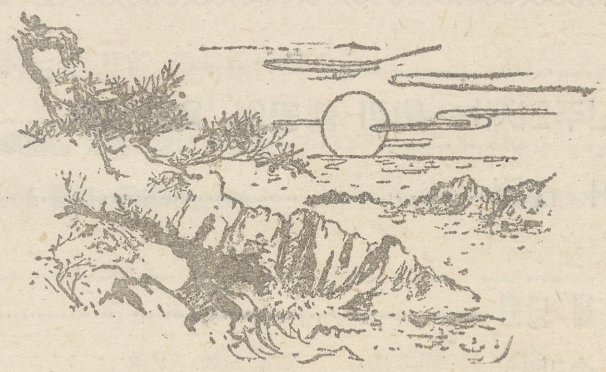
압록강! 압록강!
격랑을 치여 들고
쾅! 쾅 강산을 울리라!
거창한 가슴을 한끝 들먹이며
와—와— 격전을 부르짖으라!

—장편 서사시 《백두산》에서—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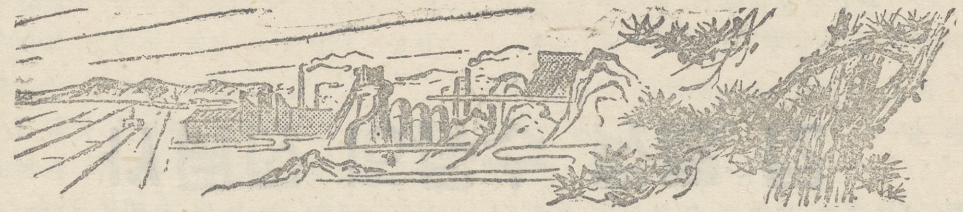
(172)



1964. 1



차 례



표지; 붉은 노을 어 순우 그림

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

친애하는 동지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우리 인민이 더 큰 승리를 달성하며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희망찬 새해—1964년을 맞이하여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은 지난 1963년에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업적을 자랑하면서 더욱 광명한 앞날에 대한 신심을 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해에 우리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1963 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초과 완수하였습니다. 나라의 경제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공업 생산은 계속 급속히 장성하고 공업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공업 총 생산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8%로 장성하였습니다.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며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여 우리의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모든 중공업 부문들에서 공장 설비들이 정비 보강되였으며 생산이 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습니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비상한 열성과 재능을 발휘하여 인민 경제의 발전과 기술 혁명의 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 경리에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새로운 대형 기계들과 정밀 기계들을 훌륭히 생산하였습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는 중앙 경공업 공장들과 지방 산업 공장들의 기술 장비가 개선되고 경공업의 원료 기지가 확대 공고화되였으며 제품의 질이 현저히 제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공업은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공업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 되였습니다.

나는 공업, 운수, 건설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농촌 경리 분야에서 또다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의 부름에 따라 수 많은 청장년들이 농촌에 진출하고 농업에 대한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농촌 진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일층 공고화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도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논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토지와 농작물을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62년 영농기에 우리 나라의 전체 논 면적이 54만 정보였는데 지난 봄에는 그것이 58만 정보로 늘어 나고 지금에 와서는 벌써 64만 정보에 달하였습니다.

농촌에서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도 급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3년 한해 동안에만도 4천여 대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비롯하여 각종 농기계들이 다량으로 농촌에 공급되였습니다. 지난 해에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6%로 장성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이미 전기가 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3 년 내에 전기가 들어 가지 않은 농촌이나 농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로력적 열성이 제고됨으로써 농촌에서 선진 영농 기술이 더 광범히 보급되였으며 모든 영농 작업이 제때에 훌륭히 수행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해에도 기후 조건은 매우 불리하였으나 농업 생산에서 류례없는 대풍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곡 총 수확고가 장성하고 특히 벼의 생산이 대대적으로 증대된 결과 우리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풍작은 우리의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가 자기의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계속 확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과 우리 농민들의 헌신적 로력 투쟁이 가져 온 빛나는 결실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가장 큰 승리의 하나입니다.

나는 당의 농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부단한 앙양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근면한 협동 농민들과 농기계 작업소, 국영 농장 로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문화 혁명의 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과학, 교육, 보건, 문학, 예술, 체육 등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붉은 과학자들은 대담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으로 의학과 생물학의 발전에서 일대 전변으로 되는 경락 계통의 발견을 비롯하여 많은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더욱 찬란히 꽃피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는 데서 찬란한 업적을 쌓아 올린 과학자, 교육자, 보건 일'군, 작가, 예술인들과 문화 전선의 모든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류례 없는 민족적 번영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지혜와 재능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만발하고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고도로 앙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자랑하며 보람찬 사회주의 새 생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전투적 기개와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훌륭한 앞날을 위하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준비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불굴의 의지와 무비의 정열을 가지고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 자기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며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고 있는 전체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는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과 경비대원, 사회 안전원, 로농 적위대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우리는 금년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남조선 형제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지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기만 술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최근 미제와 그 주구들은 《민정 이양》의 간판 밑에 선거극을 연출하고 마치도 《새 정권》이 남조선의 파국 상태를 수습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위하여 그 무엇을 할 수 있는듯이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술책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남조선 인민들은 결코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우리 조국은 통일될 수 없습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남녘 동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조국 통일의 기본 장애입니다.

박 정희를 두목으로 하는 남조선 통치배들은 입으로는 《자주, 자립》을 떠들고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비호하며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굴종하면서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 먹고 있으며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 정희 도당은 그의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미 제국주의의 충실한 주구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남조선에 일본 군국주의 세력까지 끌어 들이려고 온갖 굴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에 불과한 현 남조선 정권에 대하여 인민들이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하여 미국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괴뢰 정권을 타도함으로써만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주, 자립을 위해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내부의 힘과 자원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농업 지대와 북조선의 공업 지대를 결합시키고 남북 조선 인민들의 힘을 합하여 국내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에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부강한 통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학생, 기업가, 상인들과 모든 애국적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떨쳐 나서야 합니다.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남북의 합작과 경제 문화의 교류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북반부 인민들은 언제나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남녘 동포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남북 조선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쫓겨 날 것이며 전 민족의 일치한 념원인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에게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북반부 인민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60만 재일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공민들에게 새해의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총련의 지도 밑에 재일 동포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와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부단히 장성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 력량은 계속 자라 나고 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수정주의자들의 정체는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인민들의 심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혁명 동지들과 벗들이 계속 늘어 가고 있으며 그들은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 전선에 련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도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가릴 수 없으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완강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나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에게,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그리고 제국주의를 반대하

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새해에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여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아름답게 꾸리려는 전체 인민의 혁명적 열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금년도 인민 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은 우리의 중공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입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온갖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이미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서 활짝 꽃피게 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성숙된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이 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방직 공업을 계속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색갈과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각종 직물들을 더 많이 짜 내며 직물 생산에서 고급 직물과 겨울용 직물의 비중을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금속 제품, 전기용품, 목제품, 수지 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일용 필수품과 문화용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편리하게 문화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식료품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장, 기름, 두부를 풍족하게 생산하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실과, 채소, 수산물, 산채와 산 열매 등을 더 잘 가공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며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대규모 경공업 공장, 지방 산업 공장, 생활 필수품 직장들에서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다 동원하여 소비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소비품 생산 부문에서 연구 사업과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책임성을 부단히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인민 생활에 필요한 다종 다양한 상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며 짧은 기간 내에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농촌 경리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며 온갖 자연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논밭에 관수 체계를 수립하며 그 중 논 면적을 1~2 년 내에

70만 정보에 달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치산 치수 사업 특히 중소 하천 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농경지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를 부단히 개량하고 정리하며 토지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곳에서 2 모작을 광범히 도입하여 밭농사에서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하여야 하며 고원 지대의 농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수리화와 함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농촌 기술 혁명의 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로선입니다. 금년에 국가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농기계와 화학 비료, 농약을 농촌에 공급할 것이며 농촌 전기화에 계속 힘 쓸 것입니다. 협동 농장들과 농기계 작업소들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이며 화학 비료를 더 효과적으로 시비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고 집약적인 영농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단위 당 수확고를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종자를 개량하고 자급 비료를 더 많이 내며 밭갈이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각종 영농 작업을 제때에 잘 하여야 합니다.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은 영농 기술에 대한 연구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우리 나라의 밭농사에 더 적합한 종자를 얻기 위하여 종자 개량 사업과 채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 모든 논밭에서 정보 당 알곡을 500 키로 그람 이상 증수하기 위한 군중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곡 수확고를 높이고 벼의 생산을 급속히 증기시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알곡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게 될 것이며 전체 인민이 다 이밥을 먹도록 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을 발전시켜 육류를 더 많이 생산하며 공예 작물 생산도 계속 증대시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업의 튼튼한 기초가 축성된 조건 하에서 우리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만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 사업의 모든 령역에서 더욱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농촌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 없앨 수 있으며 로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접근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농촌에서의 당 사업을 강화하고 농촌에 더 많은 방조를 주어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협동 농장들에서 자체로 진행하던 기본 건설 사업을 앞으로는 국가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에 대한 협동 농장들의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며 농업 현물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하는 등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할 것입니다.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 생활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금년에 중공업 부문에서의 중심 과업은 이미 축성된 중공업 기지에 계속 살을 붙이고 공장들을 더욱 정비 보강하여 우리의 중공업으로 하여금 자체의 위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선행시켜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광물과 석탄 채굴량을 훨씬 더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규모의 발전소 건설 공사들을 촉진시키고 중소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계속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중공업 공장들에서 설비를 개선하고 보강하며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기계 제작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기술 혁명의 수행을 적극 추진시킬 것이며 철도의 전기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대한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964년을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해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계속 확고하게 견지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며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 철저히 수립하여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인민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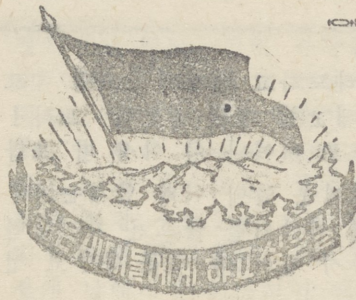
근로 대중 속에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며 부화와 안일, 권태증을 배격하고 계속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고 명랑하게 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이며 우리의 혁명 기지를 철옹성 같이 다질 것입니다.

나는 새해에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또다시 빛나는 공훈을 세우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남녀 로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더욱 큰 행복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혁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오 백 룡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그에게 부과된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가 있다. 참된 공산주의자는 자기 나라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 혁명에 이바지한다. 때문에 이 량자는 호상 련관되고 통일되여 있으며 진정한 애국자는 곧 진정한 국제주의자인 것이다.

혁명은 수출할 수도 없고 수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조선 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이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조선 땅에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며 또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혁명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주견과 책임감이 없이는 혁명의 성과적 수행도 그의 승리도 기대할 수 없다.

력사를 돌이켜 보라! 지난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고 해결할 대신에 남의 힘만 바라던 자들의 시도가 어떤 후과를 가져 왔던가. 나라의 부강과 국방을 게을리하고 외세에만 매달리던 리조 봉건 통치 계급들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송두리채 외적들에게 팔아 먹었다. 또한 나라의 독립을 그 어떤 《청원》이나 《담판》으로 성취하려던 력대 정객들의 뭇 시도도 실패의 쓰디 쓴 맛을 보지 않았던가!

바로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난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지하에서, 감옥에서, 원쑤들의 교수대에서도 굴함 없이 용감하게 싸웠다. 총칼의 숲에 뒤덮인 조국, 칠성판에 오른 민족의 운명을 두고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몸부림치며 밤'잠조차 이루지 못했던가! 그들은 자나 깨나 조선의 혁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모든 계급적 압박을 청산하고 로동자, 농민을 착취의 멍에로부터 해방시키며 우리 조국을 장차 착취 없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 것을 자기의 변함 없는 목적으로 삼는다. 항일 유격대는 언제나 이 과업 수행을 자기의 기본 사명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

또한 그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 땅 우에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는 종국적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일 빨찌산들은 조선 혁명에 대한 그

이의 이러한 교시에 항상 충실하였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불굴의 혁명 투사이던 오 중흡 동지의 모습이 삼삼히 떠오른다. 나는 그와 함께 1939년 봄을 조국 진군의 길에서 맞은 일이 있었다. 조국 땅의 바위 마다에 불타는 듯 피여 난 붉은 진달래, 구수한 흙 냄새, 삼지연의 맑은 물 맛…이 때 우리의 감격을 그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그 때 오 중흡 동지는 나와 이런 심회를 나누었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며 이 물을 젖줄기처럼 떠 먹으며 자란 조선의 아들들이다. 왜놈들이 제 아무리 발악을 치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륙하고 우리를 없애 보려고 하여도 결코 우리는 이 땅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그와 같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김 일성 원수께서 가리키는 그 길에서 반드시 왜놈들의 숨통을 찌르고 이 땅에서 일제놈들을 영원히 내몰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의 뜻을 받들고 그 이의 가르치심과 지향을 따라 휘황한 조국을 건설할 것이다.…

맑은 조국의 하늘 밑에서 한 그의 이와 같은 말에는 조선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책임성이 강력히 맥박치고 있었다. 바로 그러하였기 때문에 오 중흡 동지는 조선 혁명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모든 힘과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어려운 전투마다에서 앞장에 섰으며 아무리 간고하고 치렬한 전투 환경에서도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켰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행군할 때에도 행군에 지친 대원들에게 항상 조선 혁명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은 조선 청년들이라는 높은 자각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그들의 용기를 고무하기에 힘썼다.

…우리가 지금 10 년을 하루 같이 고생하지만 그러나 고생 끝에는 언제나 락이 따르는 법이다. 이제 우리들이 일제를 격멸 타도하고 해방된 조선 국토를 향하여 행군할 때를 생각해 보라! 조선 사람으로 태여나 이 이상 더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진했던 대원들도 다시 일어 나 이를 악물고 전진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조선 혁명에 대하여 바로 이러한 확고한 주견과 공산주의적 책임감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부닥치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타개해 나갔다. 그들은 누가 무기를 제공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피로써 그것을 쟁취했으며 피복도 식량도 자체로 마련하면서 풀과 물이 있으면 어디서나 싸우고 싸워 이긴다는 강의한 혁명 정신으로 강대한 일제를 무찌르고 끝내 승리를 쟁취하였다.

청년 동무들!

우리들은 혁명 선렬들의 이러한 고매한 혁명 사상을 배워야 한다. 이리하여 이 땅 우에 그들이 념원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숭고한 공산주의적 의무이다.

사실 조선의 아들로 태여나 조선 혁명을 완수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김 일성 원수께서는 일찌기 민청 제 3 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해결하는 엄중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는 우리는 자기를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 혁명의 주인이라는 립장에 철저히 서서 살며 투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

장하여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맹목적으로 남의 꽁무니만 따라 가며 필연코 자기 정신을 잃고 남의 정신으로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할 대신에 남에게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며 결국 자기 나라의 혁명을 망쳐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혁명가이겠는가!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아무런 주견도 없이 남의 뒤꼬리를 따르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은 고려함이 없이 남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이러한 교조주의가 그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어떤 가슴 아픈 후과를 낳고 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사상적 각오를 튼튼히 다지고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일에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생활은 교조주의와 사대주의가 수정주의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가 매사에서 주체적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는 것은 비단 조선 혁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국제 혁명에 충실한 것으로도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 시기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종심이며 세계 혁명의 기지인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며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나라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조선 청년들이 우리 나라의 혁명 진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힘 쓰는 것은 응당한 민족적 임무이며 동시에 국제적 임무로 된다.

청년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모든 단위, 모든 고리들에서 우리 당의 주체 사상을 철저히 살리며 자력 갱생의 기치를 들고 매사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자기가 조선 혁명의 주인이라는 립장에 철저히 설 때 그에게는 해결 못할 일이란 없으며 세상을 경탄케 하는 기적도 낳는 법이다.

생각해 보라.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우리가 불과 1 년 어간에 황막한 벌판 우에 세계 최대의 비날론 공장을 일으켜 세운 그런 힘, 그런 기적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그것은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의 위대한 결실인 것이다.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 사상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라!

끝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김 일성 동지의 로작과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학습할 것을 거듭 권하고 싶다.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 일성 동지의 제 로작들과 당 정책을 자신의 피와 살로 되게 함이 없이는 결코 조선 혁명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다.

청년 동무들!

당신들의 어깨에는 조선 혁명의 미래가 놓여 있다. 당신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남조선 2천만 동포들을 해방하며 이 땅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 력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부단히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적 폭풍우의 시기에 사는 청년들에게 안일이란 있을 수 없으며 1 분 1 초라도 한가한 시간이 있을 수 없다. 모두다 조선 혁명의 역군이 되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과 농업



조 정 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농업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은 로동 계급의 당 앞에 나서는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인민 생활과 인민 경제 발전에서 농업이 노는 역할로써 설명할 수 있다.

농업은 근로자들에게 식량과 여러 가지 부식물을 공급하여 주며 공업에서 요구하는 각종 원료를 보장하여 준다. 실로 농업은 인민 생활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발전시켜야만 인민 생활도 향상시킬 수 있고 공업과 농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 경리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사가 잘 되여야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고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가 잘 펴여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농업이 공업과는 달리 가물이나 장마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또 농업은 지난날 사회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락후한 부문이였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대중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빈궁과 무권리, 무지와 몽매 속에 처하여 있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착취에서 농민 대중을 해방하고 락후한 농업을 추켜 세워서 발전된 공업의 수준에 올려 세우며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고 식량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농업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의 농업 리론에 철저히 의거하여 그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때만이 가능하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농업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선 개인농 경리를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로 개조하고 그를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통하여 공고 발전시키며 이를 위해서는 당과 로동 계급의 견결한 령도와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농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확한 농업 정책을 시종 일관 실시함으로써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 위대한 변혁과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영원히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립되였으며 농민들은 모두가 다 사회주의 근로자로 전변되였다. 기술 혁명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문화 혁명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농촌은 현대적 과학과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농촌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향상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그들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였으며 새로운 공산주의적 기풍이 확립되여 가고 있다. 년년히 한재와 수재에 시달리며 원시적인 소농기구로써 고되게 농사 짓던 시대는 이미 과거 지사로 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는 관개 및 치산 치수 체계가 확립되여 심한 가물과 홍수를 극복하고 항상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구축되였으며 뜨락또르, 자동차 등을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약으로 풀을 죽이면서 흥겹게 농사 짓는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에 기초하여 우리의 농업 생산은 해마다 급속히 장성하고 있다. 1946년에 우리의 농업은 189만 8천 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다면 지난 해에는 혹심한 자연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 2.6 배인 500만 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우리 나라는 알곡이 부족하던 나라로부터 알곡의 여유가 있는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인민들의 기본 식량을 모두 입쌀로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알곡 생산을 위주로 농촌 경리가 더욱 다각적으로 발전하여 우리의 농업은 매해 10여만 톤의 육류를 비롯한 각종 축산물, 200 여만 톤의 채소, 수십만 톤의 과실, 수만 톤의 잠견과 면화, 아마를 비롯한 공예 작물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농촌은 나라의 강력한 식량 및 경공업 원료 기지로 전변되였으며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농업 생산의 급격한 앙양에 기초하여 협동 경리가 더욱 공고화되고 농민들의 분배 몫이 더욱 장성하고 있다. 협동 농민들의 호당 분배 몫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국가의 방대한 투자에 의하여 농촌에 수십만 동의 문화 주택이 건설되여 어제'날의 오막살이는 영원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학교, 병원, 구락부, 편의 시설 등 현대적인 문화 교육 보건 후생 시설들이 일떠서고 있다.

오늘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지상 락원으로 전변되였으며 서로 돕고 이끌어 가는 공산주의적인 새 생활이 활짝 꽃피여 나고 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농업 문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우리 나라의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농업 리론에 기초하여 개인농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농업을 협동화하는 데 선차적 주목을 돌렸다.

이는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락후한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농업 생산을 앙양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고리였다. 당은 해방 직후부터 앞날의 농업 협동화를 예견하고 토지 개혁을 농업 협동화에 유리하도록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개인 농민 경리를 협동 경리에로 이행하도록 필요한 제반 준비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전후에 들어 와서 농업 협동화가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필요한 조건이 구비됨에 따라 당은 제때에 이 운동을 제기하고 그를 지도하였다.

당은 협동화 운동에서 레닌적인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농민들의 준비 정도에 맞게 협동 조합의 형태, 규모, 발전 단계를 규정하였으며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개조하는 정확한 계급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의 이와 같은 현명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은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시작하였으나 4~5 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성과적으로 완성되였다.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여 감에 따라 농업 생산력은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농업 생산은 급격히 앙양되여 갔다.

이와 같이 기술적 개조에 앞서 즉 수공업적 기술에 토대하여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이였지만 개인농 경리에 비하면 몇 배나 더한 우월성을 나타내였으며 그것은 농촌 경리에 현대적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었던 것이다.

우리 당은 협동화가 완성되여 감에 따라 지체 없이 농촌 기술 혁명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

을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기술 혁명의 기본 내용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로 규정하고 우선 수리화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논'벼 재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과 해마다 한재와 수재로 인하여 농업 생산에 막대한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다년간에 걸쳐 수리화를 위한 군중적 운동을 힘차게 전개한 결과 우리 나라는 말 그 대로 《관개의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농촌은 영원히 한재와 수재를 모르는 농촌으로,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농촌으로 변화되였다.

당은 또한 수리화와 함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이 분야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기술 혁명과 함께 농민들의 문화적 락후성을 청산하며 사상 의식을 개변하는 문화 혁명을 동시에 추진시킴으로써 기술 혁명을 촉진하며 농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농업 문제 해결에서 당 및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일찌기 레닌은 《우리가 만일 각종 집단적 농업 기업에 대한 국가적 원조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사회주의 경영 실시의 지지자도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우리 당은 농업 협동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한 협동 경리에 대한 온갖 가능한 지원을 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즉 농업 현물세의 대폭적 감면, 대여한 종곡과 자금에 대한 상환의 거듭되는 면제, 농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 영농 기자재 및 설비 판매 가격의 인하, 기술 일'군들의 파견, 영농 계절에 광범한 군중적인 로력 지원, 우량 종자, 종축의 렴가한 공급과 선진 농법의 보급 등 실로 당과 국가에서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돌린 배려와 지도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국가적 지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주의를 돌린 것은 발전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게 지도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한 것이였다. 우리 당은 청산리 교시에 기초하여 농촌 지도 체계와 방법을 더욱 개선하였으며 최근에는 농촌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를 창설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청산리 방법을 더욱 관철시킬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농촌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며 국가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앙양과 농민 생활의 향상을 가져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접근시키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 과정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 시기 농업 문제 해결에서 달성한 이상과 같은 성과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 조건에 능숙하게 적용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의 령도 밑에 우리 근로자들의 간고한 투쟁에서 달성한 찬란한 승리로 된다.

얼마 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아이디트 동지는 조선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모범으로 되며 농업 문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한 나라라고 감탄하면서 이 모범을 배워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심지어 일본의 부르조아 신문 《요미우리 신붕》도 나라 면적의 75%가 언덕과 산으로 되여 있는 북조선에서 식량을 자급 자족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성과》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정열적인 붉은 제도》(즉 사회주의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감탄하였다.

농업 문제 해결에서 우리 당의 경험은 오직 농업 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철저히 의거하여 그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개인농 경리를 반드시 사회주의적인 협동 경리로 개조해야 하며 개조된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를 공고 발전시켜 그것이 인민들의 튼튼한 식량 기지로 공업의 믿음직한 원료 기지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기술 혁명와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당과 로동 계급의 견결한 령도와 국가적 지원을 아낌 없이 강력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농업 문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란폭하게 외곡하며 악랄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개인농 경리를 가지고도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이미 조직된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를 줄 대신에 그를 자연 발생성에 내여 맡기고 있다.

또한 수정주의자들은 이미 승리한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부담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강화되였다는 구실 밑에 당과 로동 계급의 령도와 국가적 지원을 포기하고 있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자본주의 요소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본질에 있어서 농업 협동화를 반대하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그만 두려는 것이며 농민들을 또다시 착취와 억압 밑에 내여 맡기려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투항 변절하여 혁명을 포기한 수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그러한 바와 같이 농업 분야에서도 사태는 다르게 될 수 없다.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서 달성한 성과는 실로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치명적 타격으로 된다.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는 실로 거대하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전진하고 있으며 농촌 경리 분야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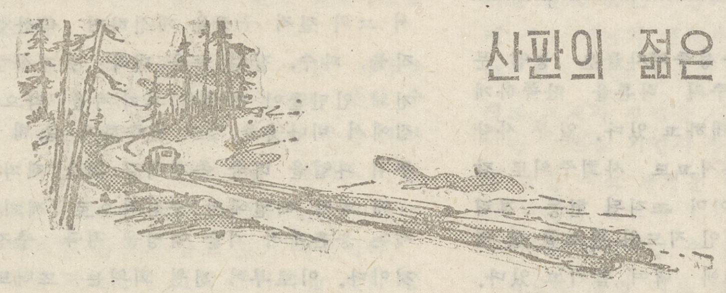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 인민 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7 개년 계획을 빛나게 수행할 것을 전 당과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농촌 경리 발전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금년에 농촌에서는 알곡 500만 톤 고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며 축산업, 공예작물, 과수, 잠업 등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유족하게 살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더욱 촉진시킬 것을 제기하였다.

이 과업 해결에서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는 것이다. 이로부터 전원 회의는 뜨락또르, 자동차, 각종 현결 농기계, 화학 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각종 기술 수단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여 기계화와 화학화를 강력히 전개하며 이와 함께 관개 및 하천 건설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하여 수리화의 성과를 확대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협동 경리를 공고 발전시키자면 국가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원 회의는 농기계 작업소와 관개 관리소의 기술적 장비를 보강하며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계화 수준이 제고되고 있는 조건에서도 방대한 과업의 해결과 관련하여 농촌에서 로력이 긴장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농촌에 대한 전 인민적 로력 지원 사업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제기하였다.

오늘 전국 농촌은 풍작의 기쁨으로 들끓고 있으며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휘황한 전망에 고무되여 그의 정확한 방침을 관철하려는 협동 농민들과 청년들의 비등된 열의로 충만되여 있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금년에도 당의 령도 밑에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농촌 경리 발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산판의 젊은 수리개들

이깔나무며 삼송들이 하늘을 찌를듯 빼곡이 들어 찬 백두 밀림은 휘몰아치는 심한 눈보라에 설레이며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이 백두 밀림의 정복자들인 보천 림산 사업소 삼지연 청년 작업소의 젊은 벌목공들을 찾아 산판으로 올라 가던 중 두툼한 솜동복 차림의 한 중년 사나이를 만났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어제 이미 작업소 사무실에서 만났던 작업소 소장 동무였다. 우리는 함께 눈보라를 뚫으며 동행하게 되였다.

《기자 동무,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린 우리 젊은이들을 즐겨 산판의 수리개들이라고 부른답니다. 왜냐구요? 그것은 비단 그들이 높은 백두산 밑에서 일한다는 그것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 또한 하늘을 높이 나르는 수리개의 넋처럼 그렇게 슬기롭기 때문이지요.》이렇게 말하면서 소장 동무는 한 민청원에 대한 자그만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한 기대공의 고민

얼마 전 일이다. 그 날도 민청원 김 창섭 동무는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그런데 뜨르르—경쾌한 음향을 지르며 돌아 가던 기계톱이 나무 열 대도 채 넘기지 못 하여 또다시 픽픽하더니 스르륵 멎고 말았다. 고장이였다.

《제길헐!》그와 짝패가 되여 나무를 떠밀고 있던 밀대공이 밀대를 홱 집어 던지고는 신경질적으로 눈 우에 펄썩 주저 앉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날만도 벌써 이것이 세 번째 고장이였던 것이다.

《오늘도 계획을 하긴 또 글렀군.》하는 밀대공의 한숨 섞인 말을 듣는 창섭은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 쓰는 것만 같았다. 사실 요즘 창섭의 기계톱은 고장이 잦아 채벌 실적을 적지 않게 떨구고 있었다.

당에서는 설비 리용률을 높이라고 계속 호소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더우기 지금 조국의 방방 곡곡의 그 수 많은 건설장이며 공장들에서 우리가 찍어 보내는 나무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그 날 저녁 합숙에 돌아 온 창섭이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야 기계가 낡았다는 한 가지 구실만 가지고는 요즘 자기 기대의 고장이 잦은 원인을 변명할 수가 없었다. 분명히 자기 기대가 이러 저러하게 사고가 많은 것은 그가 기계에 정통하지 못 하고 있으며 기대를 고장이 날세라 무리가 갈세라 정성 들여 잘 쓰지 못 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 마디로 말하여 아직 초소의 병사들이 무기를 사랑하고 그에 정통하듯 자기 기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또 그에 정통하고 있지 못 한 데 있었다. …

그런데 엎친 데 덮치기로 마음 속에서 불화가 치미는데 아까부터 몸이 으스스 해지더니 신열까지 났다. 아마도 감기에 걸린듯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지금 육체의 괴로움보다 정신적 괴로움이 더 컸다.

(정말 초소의 동무들께 면목이 없구나!)

그는 자기가 제대되여 이 곳 림산 작업소에 배치되여 오던 때의 일이 생각키웠다. 그 때 자기는 얼마나 가슴 부풀어 오르는 포부와 희망을 안고 달려 왔던가! 그것은 비단 당의 부름 따라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진출하는 데 대한 긍지만이 아니였다. 백두산이 지척에 보이는 곳, 혁명 선렬들의 발'자취가 력연히 남아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항일 투사들처럼 그렇게 값 높고 빛나게 살려라는 마음이 가득했었다.

더우기 평지대에서 나고 자란 그로서 작업소에 배치되여 처음으로 그 울창한 밀림— 풍만한 산 속의 부원을 보았을 때 그리고 기관총처럼 두르륵 거리는 기계 톱으로 아름드리 나무들을 단숨에 베여 넘기는 그 장쾌한 장면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렸던가!

(이거야말로 정말 사나이 놀음이로구나, 한 번 본때 있게 해 제껴보자!) 이런 생각이 북받쳐 올랐다. 그래 그 때 초소의 전우들께 백두 밀림의 혁신자가 되겠노라고 편지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더우기 창섭이는 지난 번 그 바쁘신 정사에도 불구하시고 백두 밀림 속의 이 작업소까지 찾아 오시여 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해서며 앞으로 더 많은 원목을 생산할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던 수상님을 생각할 때 송구스럽기 그지 없었다.

창섭이는 자신을 호되게 꾸짖기 시작했다.

(과연 너는 몸이 아프다고 그냥 누워 있을 처지가 됐느냐? 아니, 안 된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그리고는 그 길로 기대를 둘러 메고 토장 휴게실로 나갔다.

…한 밤'중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한 주익이 눈을 떠보니 옆에서 몸이 괴로와 하며 누워 있던 창섭이의 자리가 비여 있었다. 어디 잠간 나갔으려니 하여 한 삼십 분 기다려도 들어 오지 않았다. 의심이 더럭 난 주익은 밖으로 뛰쳐 나갔다. 밤은 자정도 훨씬 지나 이미 북두칠성이 꺼꾸로 매 달려 있었다. 자세히 살펴 보니 휴게실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살금살금 다가가 창문으로 들여다 보니 몸이 몹시 말쩨진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인 창섭이가 휴게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기계톱을 수리하고 있지 않는가!

그는 문을 벌컥 열면서 소리를 쳤다.

《아니 창섭이, 몸두 몹시 편찮은 것 같은데 어갈려구 그래! 응?》

《기젤 좀 수리해 보려구…》잠시 말이 없다가 주익을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정말 난 자꾸 기계 고장만 내구 계획두 못하구 면목이 없어.》

그러면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는 그의 눈에선 이슬이 번쩍이고 있었다.

《기계가 낡아서 그랬겠지. 그러기 이 기계야 래일 수리소에 보내기루 하지 않았나?》

《그러니 그 7~80 리나 되는 수리소에 가 고쳐 오려면 3~4일씩이나 걸리는데 그 사이야 일을 못 할 게 아니야?》

《제길, 그럼 내 손질해 줄게 동문 들어 가 누워 있으라구.》

그러나 끝내 일'손을 놓지 않아 함께 수리에 달라 붙었다. 그들은 날이 훤히 밝은 녘에야 수리를 끝냈다. 창섭이는 감기가 채 낫지 않아 동무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산에 올라 그 날 180%의 실적을 내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 ×

《기자 동무 정말 말 재간이 없다 보니 우리 수리개들의 불타는 마음을 그 대로 그려 내지 못 했습니다만…자 이젠 거의 다 왔군요.》

과연 바람 소리에 섞여 이 곳 저 곳에서 르르하는 기계톱 소리가 들려 왔다. 우리는 바삐 그리로 걸음을 다그치였다.

한 기대공이 기관총을 쏘는듯 기계톱을 틀어쥐고 아름드리 이깔나무를 베고 있었다. 이윽고 그 아람찬 나무는 쾅!하고 둔중한 음향을 산판에 메아리치며 넘어 갔다. 순간 눈'가루가 확 사방에 흩날린다. 그것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까지도 장쾌한 감을 불러 일으켰다.

《어, 창섭 동무! 요샌 톱이 말썽을 안 부리는가?》하고 작업소장이 말을 건네자 그 기대공 청년은 우리 쪽을 바라 보더니 히죽히 웃으면서

《에! 인젠 고장이라는 걸 모릅니다.》하고 대답했다. 그제사 나는 그가 창섭 동무라는 것을 알았다. 벌쭉부담지 않은 자오마한 키에 나이 스물 네댓 쯤 되는 청년이였다. 그는 그 이후

매일 저녁은 물론 짬 있는 대로 기대를 메고 다니며 손질하고 기대에 정통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애써 지금은 산판에서 이름 난 벌목부가 되였으며 작년 년간 계획도 한 달 열흘이나 앞당겨 완수했다는 것이다.

산판은 그야말로 끓고 있었다. 50 메터 가량 되게 간격을 두고 서서 벌목부들이 나무를 베 나가고 있었다. 사방에서 기계톱 소리며 쾅 쾅 나무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왔다. 나무 그루는 어쩌나 바싹 아래로 내려 베였는지 눈 무지 속에서 전혀 알아 볼 수 없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나라의 자원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젊은 수리개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뜨락또르들이 부터나케 나들며 베여 놓은 나무들을 끌어 냈다.

《저기서 일하는 동무가 작업반장 엄 재식 동무입니다. 처음 고속도 채벌을 도입한 동무이지요. 한 번 만나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리하여 나는 벌목공들이 피워 논 모닥불'가에서 재식 동무를 만났다.

《재미가 어떻습니까?》

《정말 일하는 멋이 있습니다.》

몸'집이 호리호리한 그는 얼핏 보기엔 말을 잘 안 할 것 같았으나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니 자기 가정일까지 모든 것을 툭 털어 놓고 소탈하게 이야기하는 좋은 청년이였다.



행복에 관한 문제를 두고

…글쎄 어떤 걸 가지구 행복이라구 하는지… 난 한뉘 이 산판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직업이 얼마나 보람차고 영예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할 때면 이 벽진 고장두 평양이나 함흥 못지 않게 마음에 들거든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제 안해는 좀 옹졸한 성미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하루 저녁은 어떻게 하면 고속도 채벌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개조하겠는가 하여 좁한 좋이'장을 없애 버리며 쨰고 긋고 하는데 자는 줄만 알았던 안해가 일어나 앉더니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좀 주무시라요. 몸도 돌봐야지요.》

《허허 잠이 안 오는 걸 어찌겠소.》 하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안해는 샐쭉해지며

《이 산'구석에서 무슨 큰'일을 한다구 그리 매일 밤을 밝혀 가며 연군지 무언지 하는지?》

하고 두덜거리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는 남편의 애타는 속도 몰라 주는 안해가 좀 괘씸합디다.

《바보 같은 소릴… 아무 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하오.》 하고 퉁을 놓았지요. 그러나 한참 후에 생각해 보니 안 됐더군요, 글쎄 천리마 시대의 청년— 그것도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해야 할 작업반장이라는게 어디 제 안해하나 바로 교양 못 해서야 면목이 있습디까. 허허… 그때 벌목부의 영예와 자랑에 대해서 정치 사업을 했지요.

《여보…우리가 생산하는 원목이 세상에 안 쓰는 데가 있는 줄 아오? 원목 한 립방이면 요새 당신이 입구 다니는 그런 고급 치마'감을 1,500 메터나 짠단 말이요.》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안해에게 이야기하는 자신도 어느 정도 흥분되더군요.

기자 동무,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저는 신문에서 어느 건설장의 벅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직업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우리가 벤 나무가 그 건설장에서 기둥으로 쓰이겠구나. 아니 온 조국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집의 어린애가 가지고 노는 목제 완구 하나를 보아도 문득 자기 직업에 대한 자랑이 샘물 솟듯 솟구친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베는 나무가 안 쓰이는 데가 있습니까? 천이 되여 사람들을 감싸지, 종이가 되여 숱한 책이며 신문이 되지, 도시를 일궈 세우지…

좀 랑만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언젠간 이런 꿈까지 꾸었지요. 제가 평양의 어느 한 고층 건물 밑을 걷구 있는데 우에서 걸걸한 웃음 소리가 들립디다. 쳐다보니 백발이 성성한 로인이 창문'가에 색동 저고리를 입은 손주를 안고 서서 거리를 내다 보구 있더군요. 로인은 손주의 볼에 구레나룻가 수북한 자기 뺨을 대고 비비며 감격해서 하는 말이였지요.

《허 지상 락원이로구나! 지상 락원!》

순간 나에게는 로인이 내다보는 창문'살이며 그 집안에 즐비하게 갖추어진 이불'장이며 비단 이불이 류달리 아름답게 보입디다.

(저게 모두 우리가 보낸 목재로 만든 것이로구나, 저 로인이 바라 보는 이 도시도!)

그 때 저는 그 로인이 이 백두의 벌목부를 알아 봤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도리질을 했지요.

(에라 모르면 어때리 우리는 여하튼 인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참말 인간 생활에서 나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그 날 밤 이런 이야기를 숙 안해에게 했답니다. 샐쭉했던 안해의 얼굴도 점차 달라지더군요.

《뭐 누가 여길 싫다나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후 안해에게선 《전변》이 일어 났는데 어느 날 새벽 깨여 보니 안해가 어느새 일어 났는지 머리맡에서 기대를 닦고 있더군요.

《히 대단한데》하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호호…그래야 백두 밀림의 벌목부 안해가 될 수 있지요》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어쩐지 못 생겼다고 생각되던 안해도 원통하게 잘 나 보입디다. 허허…

그 후 나도 끝내 구동 치차와 톱날 쓰는 방법을 개조해서 고속도 채벌에 성공했지요. 한 기대가 시간 당 20~22 립방 베던 것을 일약 33 립방까지 베게 되였지요…

× ×

어느덧 수림 우로 해가 기울어 들고 있었다. 멀리 하늘 높이 수리개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우여—》 한 청년이 수리개를 보고 소리를 친다. 아마도 용솟음 치는 젊은 힘의 폭발이리라!

그러나 하늘의 수리개여! 네 아무리 높이 날아 올라도 이 산판의 젊은 《수리개》들의 넋처럼 그렇게 높이 날으진 못 하리!

다른 작업 구역에 갔던 작업소장 동무가 돌아 와 독촉을 했다.

《기자 동무, 이젠 내려 갑시다. 날도 저물었는데…》

그리하여 우리는 귀로에 올랐다.

소장 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 곳 청년 작업소에서는 지난해 년간 계획을 12월 9일까지 완수하였다 한다.

그러나 금년엔 당의 붉은 편지와 민청 5차 대회를 맞으며 전체 민청원들에게 보낸 민청 중앙 위원회 호소문을 받들고 청년들이 새로운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5월 1일 전으로 상반년도 계획을 끝내고 자기의 대회에 그 훌륭한 성과를 선물하겠다고 한다.

어느덧 밀림 속엔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였으나 기계톱의 경쾌한 동음은 계속 산판을 메아리치고 있었다.

본사 기자 김 영길

청년생활 소사전

벌의 침끝이 물체에 가하는 힘

보통 300 그람의 힘으로 바늘을 누를 때 바늘 끝은 물체에 한 평방 센치 메터 당 1,000 키로라는 큰 힘을 미친다.

그러나 그 끝이 불과 0.00000000003 cm^2의 극히 작은 면적 밖에 안 되는 벌의 침은 같은 힘을 작용시켰을 때 한 평방 센치 메터 당 300 톤 이상이라는 놀라운 힘을 물체에 가한다.

이와 같이 물체의 끝이 뾰족하고 예리할수록 가하는 힘은 좁은 면적에 집중되여 큰 힘으로 되며 물질 내부로 깊이 파고 들어 가게 된다.



공산주의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다

신 구 현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말이 말값을 해야 한다》는 격언을 즐겨 쓰군 하였다. 이 한 마디의 격언 속에는 사람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실천 행동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

언행 일치(言行 一致)는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덕이였다. 우리 인민은 말이 바르고 고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결심과 언약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어코 실천하고야 마는 고상한 미풍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들은 언제나 언행이 일치한 사람을 깊이 신뢰하고 존경한 반면에 그렇지 못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멸시하였다.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듣지 않는다》느니, 《말로 온 동리를 겪는다》느니, 《천 량 빚도 말로 갚을 놈》이라느니,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품었다》느니 하는 속담 속에는 례외 없이 언행이 일치하지 못 한 자들에 대한 심각한 조소와 풍자가 담겨져 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언행 일치의 미덕을 존중히 하였는가를 말하여 주는 실례는 수 없이 많다.

옛날 신라 나물왕의 두 왕자가 적국인 고구려와 왜국에 붙잡혀 가 억류된 일이 있었다. 이 때 신라의 박 제상은 《만약 어렵고 쉬운 일을 가린 다음에 실행한다면 이는 충성이 없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을 따진 다음에 행동한다면 이는 비겁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기약하고 적국에 갔으며 지어 자기는 적들에게 붙잡혀 화형(火刑)까지 당하면서도 끝내 두 왕자를 구출해 내였다.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만도 우리는 한번 맹세한 언약을 목숨을 걸고라도 실행하고야 마는 우리 인민의 높은 덕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그의 울음을 달래우느라고 자꾸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후일 그 평범한 나무'군에게 끝내 시집 갔다는 평강 공주(왕의 딸)에 대한 이야기며 그 어떤 폭력과 권력 앞에서도 한번 언약한 사랑의 지조를 끝까지 굽히지 않은 춘향이의 이야기들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들에게 전해졌는가!

우리 조상들의 언행 일치의 미덕은 18~19 세기 실학의 대가들에 의하여 더욱 아름답게 꽃피여 났다. 원래 실학이란 그 자체가 공리 공담을 배격하고 실천성을 중요시한 학문이였다. 그리하여 실학의 거장 박 연암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처리만 하면 그가 비록 돼지를 치는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의 어진 벗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도 50이 지나 벼슬'길에 오를 때 《나는 농민의 관리다.(農官)》라고 하면서 인민들 앞에 맹세한 것을 속이지 않았다. 실학의 집대성자 정 다산 역시 공리 공담을 즐기는 봉건 통치 계급들을 극도로 증오하였고 자기의 일생을 진리에 대한 실천적 연구에 바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철학, 과학, 문학, 예술 발전에 고귀한 업적을 남기여 놓았다.

실로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 언행 일치는 고상한 도덕적 풍모의 불가결의 측면을 이루었으며 민족적 전통으로 공고화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령도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르러 이 고귀한 품성은 가장 전면적으로, 가장 높이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발현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언제나 빨찌산 대원들을 조국과 인민 앞에서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천하고야 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 혁명 투사로 키우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아동단의 규률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비렬한 것은 굴종과 변절과 거짓말이다.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말은 용서 못 한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항일 빨찌산들은 혁명 대오에 참가하면서 다진 맹세와 결의를 빛나게 실천한 강의한 혁명 투사들이였다.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한 번 다진 맹세를 원수들의 감옥과 사형장에서도 굽힘 없이 굳세게 지켜 나아간 마 동희, 권 영벽, 박 길송, 리 순희… 이 모든 기라성처럼 빛나는 1930 년대 투사들과 공청원들의 빛나는 모범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 우리 인민의 귀중한 혁명적 구감인 것이다.

항일 빨찌산의 불패의 힘은 혁명적 리론과 혁명적 실천의 결합, 계급 투쟁의 리론과 그 실천과의 통일에 그 근저를 두고 있었다. 항일 빨찌산들은 바로 그 혁명적 리론과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대중을 각성시켰고 지어는 깊이 잠든 사람들까지 흔들어 깨워 그들을 혁명 투쟁에 힘 있게 불러 일으키였다.

언행 일치는 공산주의자들의 도덕 품성의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란 원래 세계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항상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킬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당원들이 당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만세》만 부를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지식을 위한 학습, 리론만을 위한 학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글뒤지》가 되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교시하시였다.

언행 일치는 오늘 당과 수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귀한 풍모로 되고 있다.

《차라리
한 줌 흙으로 변할지언정
고지를 탈취하고야 말겠다.》

이것은 1,211 고지 좌측 무명 고지 습격을 앞두고 리 수복 영웅이 민청 분조 회의에서 다진 맹세의 한 구절이다. 그는 가렬한 전투 행정에서 이 맹세를 훌륭히 실천하여 자기의 목숨으로 부대의 진격로를 열었다.

공화국 영웅 리 병모 동무는 자기의 입당 청원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는 당과 혁명이 요구한다면 나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굳은 각오를 다지면서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의 일원으로 받아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의 이와 같은 신념과 다짐은 일상

생활 속에서 행동을 통하여 훌륭히 실천되였다. 그는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농장원들과 민청원들의 앞장에 서서 고향 마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일에 온갖 충성을 다하였으며 얼음물에 빠진 귀중한 어린 생명들을 건지기 위하여서는 19 세의 꽃다운 청춘까지 바쳤다.

리현리의 붉은 선동원 리 신자 역시 일상 생활에서 언행 일치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리 신자 동무의 품행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일치하였으며 그는 자기의 괴로움과 희생을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하여 당과 군중에게 복무하였으며 솔선해서 남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 동무야말로 진정한 공산주의 교양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같이 언행 일치는 사람들이 소유해야 할 가장 고상한 도덕 품성의 하나이다. 더우기 이것은 의식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동원해야 할 우리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이의 가장 전형적인 실례를 우리는 지주, 자본가 등 착취 계급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을 착취함이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들은 진리를 엄폐하며 근로 인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말로는 《박애》, 《평등》을 부르짖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며 말로는 《정의》와 《진리》를 떠벌리나 《황금》을 위해서는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다.

오늘 세계 인류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는 《평화》의 미명 밑에 백방으로 《침략 책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조선의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은 입으로는 《구악 일소》와 《복지 건설》을 부르짖으나 인민들을 더욱 커다란 재난 속에 밀어 넣고 있다. 이와 같이 착취 계급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언행 일치란 있을 수 없다.

언행의 불일치는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들은 공산주의자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입으로는 맑스-레닌주의와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의 제 원칙들을 념불처럼 외우고 있으나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 그들은 미제를 세계 반동의 괴수로, 세계 인민의 원쑤로 규탄한 모쓰크바 성명에 자기들도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80도로 변해서 미제를 자기의 친근한 벗으로 삼고 있으며 미제가 조종하는 대로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 책동에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말로서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이요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으나 사실은 단결을 파괴하고 형제 국가를 고립시키며 내정에 간섭하며 압력을 가하는 등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배치되는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서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을 혁명의 배신자로 일치하게 규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자기들의 가장 가까운 동료로, 형제로 맞아 들이고 있다. 지어 그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들과 근본적인 모순이 없는바 그것은 우리 두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까지 떠벌리고 있다.

한때 수정주의자들은 핵 무기 금지에 대하여 미영 제국주의자들이 제의한 부분적 핵 시험 금지 문제를 거듭 반대하여 왔으나 그 후 정세의 변동을 운운하면서 이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자기의 종전의 발언과 립장을 돌연히 포기하고 미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방조해 나섰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신들도 조인한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서 민족 해방 투쟁과 각국의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적극 지지할 데 대한 언약을 저버리고 오늘에 와서는 그를 반대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 일반을 덮어 놓고 반대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까지도 반대하며 투쟁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정세가 변동된 오늘에 있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면 제국주의자들이 성 나서 핵 로케트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 인류가 멸망할터인데 해방 투쟁을 해서 뭘 하겠는가? 죽은 송장을 위해서 혁명이 필요한가고 떠들어 대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피압박 인민들은 투쟁을 포기하고 그 대로 참고 견디여 나가라는 부르죠아적 설교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말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떠들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결과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계급 의식이 극도로 마비되고 나라에는 서방 양풍이 범람하고 있으며 '건달'군, '사기'군, '협잡'군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신을 맑스-레닌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리 부동하고 언행이 불일치할진대 그들을 누가 맑스-레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공산주의적 풍모라고는 추호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따위 인간 쓰레기들을 반대해서 단호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그들의 행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실천이 진리의 규준으로 되는 것처럼 언행 일치 여부는 진정한 공산주의자와 거짓 공산주의자, 참된 사람과 성실치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우리는 자신의 수양에서 언행 일치의 훌륭한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우며 나아가서는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세계 혁명에도 기여하는 참된 공산주의적 혁명 전사가 되여야 한다.

한 번 마음 먹은 바를 끝까지 관철하고 한 번 맹세한 일을 끝까지 관철하는 이악한 품성은 전도 양양한 청년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청년들은 반드시 언행이 일치한, 사회적으로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여야 한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자면 표리가 없어야 한다. 어두운 데 있을 때에도 밝은 데 있는 것과 같이 하며 혼자 있을 때에도 뭇사람과 같이 있을 때처럼 하여야만 내 마음이 누구나 우러러 보는 청백한 것으로 될 것이다. (리 이)



한 천리마 기수의 일기장에서

북제 철도 합숙 11 호실은 원산 근위 기관구 운전 235 호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의 《집》이다. 기자는 어느 날 그들의 이 《집》을 찾았다. 방안에 들어 서니 동 작업반의 한 성원인 듯한 청년 하나가 책상에 마주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었다.

후에 알고 보니 그는 기관 조사 박 병근 동무였다. 어찌나 좋은 청년인지 잠간 사이에 기자는 그와 친숙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작업반원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였다. 그러다가 기자의 시선이 무심'결에 그의 책상 우 수첩에 닿았고 문득 아까 그가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던 것이 생각나서 《그런데 동무는 아까 거기에 무엇을 쓰고 있었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기자의 이런 물음에 그는 그저 간단히 《일기지요… 말하자면 우리들의 생활의 력사라 할가?》 하고는 그런건 우리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물건이라는듯 접어서 책상 서랍 안에 넣으려는 것이였다.

《잠간만… 허락하신다면 그 수첩을 좀…》

그는 기자의 부탁에 성큼 응해 주었다. 기자는 그 날 밤 그의 수첩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그에게서 들은 그 많은 이야기를 과연 여기에 기록된 생동한 생활처럼 그려 낼 수 있겠는가고 기자는 오래오래 생각한 끝에 그의 양해를 얻어 그 중 몇 토막을 그대로 옮겨 편집부에 제출하였다. 그것이 바로 며칠 분의 아래의 일기이다.

× ×

1963년 3월 ○○ 일

새벽 다섯시에 야간 운행을 무사고로 끝내고 상쾌한 마음으로 합숙에 돌아 왔다. 호실에 불이 켜져 있어 이상하다 했더니 반장 동무가 책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매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가? 무슨 일이 잘못 되였을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가? 나는 오늘 종일토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 했다.

× ×

여기에 기자가 이야기로 들은 말을 그대로 보탤 것이 있다. 그것은 작업반장 리 광선 동무가 이 날 어찌하여 새벽녘까지 자지 않고 책상에 마주 앉아 그처럼 침울한 세계에 잠겨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일기책의 주인인 박 병근 동무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그 날 우리는 원산—북제 간을 달리게 되였는데 날씨는 온화한 편이였습니다. 내리던 눈은 땅에 떨어지기가 바쁘게 녹았으니까요. 그런데 동가리역부터는 날씨가 급변해지더군요. 눈보라가 일면서 말입니다. 녹은 눈은 철'길에 얼어 붙고 그 우에 눈은 또 덧쌓이고 했지요. 일이 안 될 때라 이런 때 우리는 구배가 급한 고개'길을 오르게 되였지요. 아니나 다를가 고개'길에 이르니 기관차 바퀴는 눈에 미끄러져 공회전을 하기 시작하였고 한 걸음도 앞을 나갈 수 없더군요. 눈을 치우는 기관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니 몇 시간을 묵어야 할지 모를 일이였습니다. 정시 운전은 그렇다치고 초조해 할 손님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더군요. 우리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작업반장의 얼굴만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작업반장은 조금도 침울한 기색이 없이 〈눈은 치우며 올라 갑시다.〉하고 훌쩍 삽을 쥐고 눈보라 속을 뛰여 내립디다. 고개도 이만저만한 고개가 아니였습니다. 다섯 키로도 넘었으니까요. 나도 힘꼴이나 쓰는데 두 키로도 못 가서 기운이 진해집디다. 그러나 그는 한 번 피대하는 일도 없이 계속 노래를 부르며 앞장에 서서 나가더군요. 우리는 두 시간도 채 못 되여 보라는듯이 고개를 점령했습니다. 며칠 뒤에야 안 일이지만 그가 책상에 마주 앉아 있은 것은 자신이 큰'일을 저질러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겼다는 거지요. 철도에서 시간은 생명인데 그래 철도 일'군으로서 이보다 더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장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앞에 떠 오르는 것인가!

× ×

4월 ○○ 일

아침에 반장 동무가 한 자리에 좀 앉자고 해서 모였더니 그는 책상 우에 웬 지도 한 장을 펼쳐 놓는 것이였다. 그것은 철도 지도였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호가 깨알처럼 씌여 있는데 증기를 덜 쓰고 운전할 수 있는 구역, 증기를 안 쓰고도 달릴 수 있는 내리막 구역을 표시한 것들이였다. 작업반장은 그것을 일일이 짚어 가며 설명을 가했다. 또한 그는 증기의 허실을 방지하기 위한 자첨 자수 대책, 적은 석탄으로도 증기를 많이 얻기 위한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내놓았다.

그렇게만 한다면 초보적인 계산에 의해도 우리 작업반 앞에 부과된 절약 과제는 능히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 반원들은 이 날 아침에야 비로소 며칠 전에 우리 작업반에 떨어진 석탄 절약 과제를 생각할 수 있었다. 참 우리 반장은 거저 그만이야.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아…

5월 ○ 일

우리의 석탄 절약 과제는 성과적으로 수행돼 간다. 오늘 원산 역에 도착했을 때 작업반장은 산'더미 같은 재탄 무더기를 가리키며 《저 것을 다시 쓸 수 없을가》 하고 말했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무연탄으로도 증기가 제대로 오르지 않아 고생하는데 한 번 쓰고 난 재탄으로 어떻게 육중한 기관차를 끌고 다닐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꼭 될게야, 가정에서는 재탄으로 밥을 짓거던. 저것을 재생한다면 국가에 얼마나 큰 리익을 주겠소.》 하고 그는 거듭 말했다.

나는 그가 공연한 생각을 한다고만 여겼다.

5월 ○○ 일

원산역에서 작업반장은 불쑥 재탄을 실으러 가자고 하였다. 어리둥절해 하는 나를 보고 《증기가 많이 드는 올림'길에서는 무연탄을 사용하고 내림'길에서만 재탄을 사용하잔 말이요. 열학적인 계산도 해 봤소.》

과연 우리는 재탄을 쓰면서도 그 날 운전을 정시로 보장했다. 한 달에 50 톤의 절약은 문제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닌 큰'일이다. 이것은 혁신이다. 우리는 이 경험을 우선 기관구적으로 일반화해야 하겠다.

5월 ○○ 일

이른 새벽 반장 동무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병근 동무, 저 연기를 잘 살펴 보라니, 연기 속에는 타지 못 한 무연탄 가루들이 수 없이 날아 가거던.》 듣고 보니 그것은 참 아깝지 그지 없는 일이다.

《우리 함께 저것을 꼭 해결해 봅시다.》

나는 그의 말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배웠다. 청년들이란 그 어떤 성과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망망 엉뚱한 것만 꿈 꾸는 것도 좋지 않다. 사소한 주위 사물을 놓치지 말고 세심히 관찰하며 거기서 항상 하나씩 하나씩 좋은 일을 생각해 내고 고심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에 유익할 것이다. 참된 생활의 주인이 되여서 말이다.

5월 ○○일

오늘 우리는 모두들 학습을 열심히 하였다. 확실히 학습에서 토론과 론쟁은 좋은 것이다. 내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리해하게 되였는가? 학습, 학습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저녁 무렵 작업반장은 숨을 헐떡이며 나에게로 달려 왔다.

《손 형권 동무가 기관사로 되였소. 기관사로 말이요.》

그의 기뻐하는 모습은 흡사 어린아이와도 같았다.

나 역시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랬다.

몇 달 전만 하여도 형권 동무는 《기관사야 5~6 년 후에나 바라 볼 일이지.》 하고 먼 앞날에나 있을 일처럼 꿈 같이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동무가…7 개월만에 기관사로? 나는 스스로 그에게 개별 지도를 이악하게 해 나가던 반장 동무를 생각하게 되였다. 옳지 그런 일도 있었지. 손 형권 동무는 반장한테서 배우면서도 졸고 있은 때가 있다. 그 때 작업반장은 그를 조용히 데리고 밖으로 나갔었다. 반장 동무는 그에게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해 주면서 그에게서 졸음을 쫓아 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들어 와서 한 문제 한 문제 가르쳐 주었다. 정말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혹시 다음 번 개별 지도 대상은 내가 아닐가?



6월 ○ 일

우리 작업반에는 큰 경사가 났다. 신 동명 기관사가 350 톤 화물 밖에 끌 수 없는 고산—복계 간 선로에서 450 톤의 화물을 끌었다. 100 톤의 견인 초과—이것은 실로 고산—복계 간에서 새 기록을 창조한 셈이다.

그러나 내가 이보다 더 놀랍게 생각한 것은 한 동지의 발전이였다. 신 동명 기관사가 두 달 전에 이 곳에 배치되여 올 때만 하여도 매우 고집이 센 사람이였다. 혁신을 일으키려다가 사고를 치는 것보다 종전 대로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상책이라고 하던 동무였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혁신자로 발전한 것이다. 그렇다. 나는 신 동명 기관사의 집에 수 없이 놀러 가고 짬만 나면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작업반장이 생각 난다. 우리 반장 동무는 정말 사람과의 사업에서 능수였다. 말이 없고 꽁한 성격에다가 배알까지 유달라 동무들의 애를 태우던 김 동무의 개변에 대해 생각해도 그렇다. 동무들은 그의 고질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반장 동무는 끝내 이런 고질을 쑥 빼 버리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 번 토라지기만 하면 칼날이 안 들어 가던 손 동무도 오죽 했던가! 그도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여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참말이지 우리 작업반장은 한 번 동지들의 결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끝까지 고쳐 놓고야 마음을 놓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동지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6월 ○○ 일

자기 자신의 공로보다 남의 공로를 더 앞에 내세운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되자면 실로 수양이 필요하더라! 나는 우리 반장 동무만은 이런 수양을 잘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일만 두고 보더라도 그렇다.

고산역에서 출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다. 작업반장은 뜻밖에도 진흙을 파러 가자고 했다. 연기 속에 무연탄 가루가 섞여 날아 나는 것은 무연탄에 찰기가 없는 탓이라 진흙을 섞어 때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연탄 덩어리가 열을 올리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나 조금씩 퍼 넣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실험을 통해 10~20%까지의 진흙을 섞어 땔 수 있으며 그것 만큼 석탄이 절약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과연 언제 그런 것을 다 실험해 보았을가?

이 날 운전을 성과적으로 끝냈을 때 나는 기쁨을 못 이겨 그에게 열렬한 축하의 말을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허허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발기자는 리 석근 동무요, 그에게 축하를 드리오.》 하고 말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의 얼굴에서 나는 허식이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리 석근 동무는 반장 동무가 연기 속에 무연탄이 섞여 날아 나는 것을 잡아 쓰기 위해 몹시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는 《우리 기관차의 굴뚝에서도 가정들에서처럼 흰 연기를 오르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작업반장은 이 때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다가 무릎을 타 치면서 《동무 위대한 것을 생각해 냈소.》 하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반장 동무는 여기에서 진흙을 섞어 때기 위한 착안을 하고 완강한 실험도 해서 끝내 성공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리 석근 동무의 발기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6월 ○○ 일

오늘은 석탄 절약에 대한 총간 총화가 있었다. 총화 때 한 동무가 《이제는 석탄 절약에 대한 문제는 그 만큼 하면 되지 않을가요.》 하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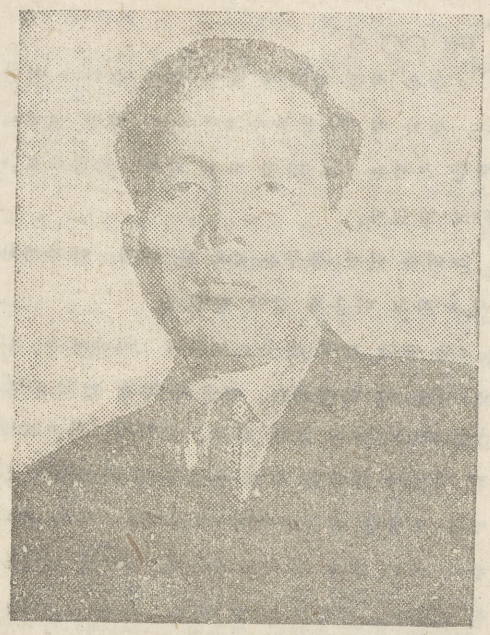
그러자 반장 동무는 《내 한 가지 이야기하지.》 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 승학 로력 영웅으로부터 기관차를 인계 받을 때 이야기요. 영웅의 투쟁 업적은 동무들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불의의 사고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손님들과 기관차의 생명을 구원한 영웅담이며 기관차를 자기 몸과 같이 아껴 계속 무사고 운전을 보장한 이야기들 말이요.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원쑤들의 함선들이 불과 800 메터 거리에서 노리고 있는 그런 지점도 그는 과감히 뚫고 나가면서 전선 수송을 제때에 보장하군 하지 않았소. 바로 그러한 영웅이 우리에게 기관차를 인계해 줄 때 자기가 한 일이 적은 것을 몇 번이고 말했소. 그리고는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못 한 일을 백두산의 혁명 정신으로 계속 해 달라고 하지 않았소. 우리는 그의 부탁을 아직 다 못 했소. 아니 우리는 혁명하는 전사요. 온 평생을 투쟁하며 살아야 하오.》

× ×

탁 병근 동무의 일기는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며 또 끝나지도 않았다. 우리는 기대해서 좋을 것이다. 그의 일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송가가 기록되리라는 것을…

본사 기자 하 만춘



위대한 발견, 위대한 공헌!

리정구

사람들은 원자 물리학의 발견과 원자 핵 에네르기의 리용을 20 세기의 가장 큰 과학 혁명이라고 일러 왔다. 그런데 오늘 인류는 그보다 못지 않는 또 하나의 위대한 과학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고 집대성된 유명한 경락에 관한 학설이다.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1961년에 경락 실태를 발견하고 그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경락 계통이 하나의 새로운 독립된 기능적-형태적 체계라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다. 이것은 기존 과학 지식으로써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위대한 발견이다.

《경락 계통에 관하여》라는 론문에서 상세히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금번의 연구 성과는 실로 기적적인 것이였다. 종래의 피부 또는 피부에 가까운 조직안에만 존재한다고 생각되여 오던 봉한 소체(경혈부위에서 찾은 구조물)가 생체의 깊은 곳(피하 조직의 심층, 혈관 및 내장 장기의 주변)에도 일정한 합법칙성을 가지고 배렬되여 있으며 그것이 표층에 있는 봉한 소체와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새로 밝혀졌다. 그리고 봉한관(경맥)도 역시 피부 및 피부에 가까운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깊은 곳들에도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봉한관들이 혈관과 림파관 내에도 뻗쳐 있다는 것이 발견되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수 세기를 두고 혈관 또는 림파관 내에는 다만 혈액 또는 림파액만이 있다고 보아 온 그러한 과학의 상식마저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으로 된다.

경락 연구 집단은 또한 경락 계통이 하나의 독특한 전신 순환 계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들은 봉한 소체와 그를 련결하는 봉한관 내에는 특수한 액체인 봉한액(경액)이 있는데 이 봉한액은 혈액이나 림파액과 같이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종전까지 데스옥시리보 핵산이라고 불리우는 물질은 다만 유기체 세포의 핵 안에만 존재한다고 간주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 집단은 자기의 독창적 연구 방법으로써 현대 생물학에서 연구의 초'점으로 되여 있는 데스옥시리보 핵산이 바로 봉한 소체와 봉한관 내에 많이 포함되여 있으며 이것이 균일한 봉한액 내에 세포액과는 관계 없이 특수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 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는 위대하고도 고귀한 발견이다.

이 발견에 의하여 지금까지 공인되여 온 현대 생물학 및 의학의 기초 리론 체계는 응당히 개편되고 더욱 보충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으며 의학 실천에서도 새로운 거대한 전환이 일어 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경락 계통의 발견은 수천년의 슬기로운 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 동의학의 제 성과들을 당의 지도 하에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온 결과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는 동의학의 실험적 리론적 기초를 더욱 확고히 꾸릴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서 동의학 발전의 길은 더욱 광활하게 열려지게 되고 나아가서 이 학설은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의 보물로써 그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였다.

경락 계통의 발견은 여기에만 의의가 있지 않다. 그의 발견은 또한 생물체의 활동의 통일성을 신경 계통으로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경주의자들의 완고한 리론이 얼마나 무근거한 것인가를 폭로하였으며 사물을 고찰하는 그들의 주관주의적 방법의 해독성을 똑똑히 밝혀 주었다. 그러면서 경락 계통의 발견은 신경의 역할을 더 정확히 규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신경과 다른 편계 조직과의 호상 관계에 대해서도 더 정확한 해명을 줄 수 있게 되였다.

경락 계통의 발견은 종전의 학설로써는 설명하지 못 하던 많은 생리적 현상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줄 수 있게 하였으며 지금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 한 많은 질환들, 특히 불치의 병(예컨대 암, 간질환 등)과 소위 유전병들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그 치료와 예방의 방법을 완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창조적 로동력을 보호 증진시키며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경락 계통의 발견은 축산업의 발전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가축의 질환을 치료 예방하며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도를 개척하게 할 것이다.

경락 계통의 발견은 생물학으로 하여금 생명의 본질을 리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획기적 전진을 이룩하게 할 것이며 동물체의 통일적 활동의 원리, 동물체와 외부 환경과의 통일의 원리를 보다 심오히 리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이 생물 현상을 장악하고 생물체를 개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무기를 쥐게 될 것이다.

경락 계통의 발견은 이처럼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에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되며 과학자들에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을 생각키우게 한다. 실로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은 세계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세웠다.

과학 발전의 력사 상에서 이처럼 새로운 지식의 넓은 경지를 한꺼번에 열어 주는 그러한 발견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신경 계통이나 혈관 계통이 발견된지 벌써 3~4 백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그것들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끝이 없음을 알고 있다.

경락 계통은 이제로부터 연구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의심할 바 없이 광활한 미 개척의 새 력사에서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 한 새롭고도 가치 있는 수다한 과학의 보물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과연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위대한 새 시대는 시작되였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현대 자연 과학에서 최대의 위력한 대변혁이며 혁명이라고 서슴 없이 말하는 것이다.

오늘 조선 인민들과 더불어 전 세계 인민들은 경락 계통에 대하여 커다란 주목과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무한한 기쁨을 자아내고 있다.

중국의 한 출판물은 우리의 위대한 발견을 축하하면서 《이 연구 성과는 세계 과학계에서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의 새로운 단계의 시초로 평가되고 있으며 인류 과학 발전의 거대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썼던 것이다.

위대한 과학 혁명의 하나인 경락에 관한 발원지가 우리 나라—천리마로 달리는 조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게 된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실이 어떻게 우리 나라에서 일어 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선조들의 고귀한 유산을 계승 발전시켰기 때문이였으며 과학자들의 굽힐 줄 모르는 창조적 열성과 인내성 있는 노력의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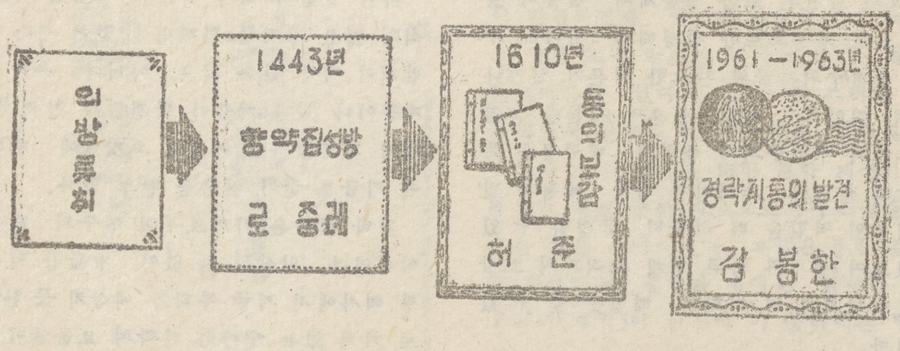
우리 당은 우리 나라 과학을 급속한 기간내에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울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기하고 이를 위하여 과학 연구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며 선진 인류가 달성한 성과들을 부단히 섭취하면서 현대 과학 발전과 선조들의 과학 유산의 계승 발전을 병행시켜 나아갈 데 대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을 내세웠다.

우리 당은 또한 항상 과학자들의 생활에 깊은 배려를 돌려 주면서 과학 연구를 위한 제반 물질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데서도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금번 발표된 경락 연구에서의 위대한 성과도 그의 실험 설비와 연구 성원들의 건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배려와 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열매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은 금번의 위대한 경락 계통의 발견에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이와 같은 빛나는 성과를 낳게 해 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에 뜨거운 감사의 정을 보내고 있다.

오늘 7 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향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 앞에는 과학 기술을 전면적으로 더욱 급속히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의 모범을 본받아 자기 맡은 초소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과 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공훈을 세우자!

경락 계통이 발견되기까지



실화



세 형제, 세 당원

몽금포 일대에 미군 야수들이 기여 든 1950년 10월 어느 날, 이 고장에 높이 솟은 관봉으로는 무성한 소나무 사이를 누비며 세 사나이가 오르고 있었다. 등에다 배낭 하나씩을 꾸둥쳐 졌는데 그들의 걸음걸이는 몹시 지쳐 보였다. 룡연군 선교리에 사는 강 학서, 강 학권, 강 학현의 삼 형제였다. 며칠 전 그들은 구월산 방면으로 후퇴하다가 불의에 바다로부터 상륙한 적들에 의하여 후퇴로를 차단당하였다. 그래서 지금 산으로 오르는 것이다.

멀리 마을 쪽에서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타래쳐 오르고 이따금씩 자지러진 총'소리가 들려 오군 하였다. 그 곳에 남아 있을 어머니며 누이며 부락 사람들의 일이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사랑하는 가정과 마을에 그리고 온 조국 땅에 닥쳐 온 시련은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

그들은 산에 오른 즉시로 깊은 수림 속에 조그마한 초막을 쳤다. 가마 대신 남비를 걸고 간단한 살림 도구들을 펼쳐 놓았다.

밤에 그들은 불'빛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출입문에 모포를 치고 코콜'불을 켠 후 한 자리에 모여 앉았다. 맏형이 태우는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타래져 오를 뿐 초막 안은 납'덩이같이 무거운 침묵에 지지눌리워 있었다. 이윽고 둘째인 학권이가 그 침묵을 깨뜨리였다.

《형님, 어떻게 하자우?》

《싸워야지!》

오가는 말은 간단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온 조국의 운명을 념려하는 천근 같은 무게가 느껴지였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당에 속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후퇴한 우리 당 조직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때까지 원쑤들과 싸우기 위해선 먼저 림시 조직이라도 조직해야 할 게 아니냐?》

《옳수다. 형님. 당원들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일정한 조직에서 일해야 하는 게고, 그래야 또 모든 일을 당'적으로 분공하고 총화하고 잘못 했을 땐 서로 비판도 하고 규률도 세울 수 있지요.》

…이리하여 원쑤들이 강점한 적후의 한 밀림 속에서는 이 날 밤,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피'줄처럼 련결된 기층 조직인 삼 형제의 림시 세포가 조직되였다. 그것은 원쑤들에게 있어서 폭탄보다도 몇 백 배나 더 무서운 것이다. 세포 책임은 둘째인 학권이가 맡아 보게 되였다.

…첫 분공이 조직되였다. 맏형 학서는 적들이 둥지 튼 오가촌의 적정을 탐지해 올 것, 학권이는 적들의 경비 구역에 들어 가 장차 폭발물로 쓸 말뚝 지뢰를 해체해 올 것, 막냉이 학현이는 초막에 남아서 세포 학습회 때 발표할 학습 자료를 연구할 것 등이 각각 분공되였다. 그 밤으로 지체 없이 행동은 개시되였다.

형들이 떠난 다음 날 학현이는 초막에서 학습회 준비를 하면서 공작 나간 형들이 돌아오

기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낮게 드리운 하늘에서는 눈이 부실부실 내리더니 저녁때부터는 제법 눈보라까지 휘몰아쳤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보라치는 관봉 밑 골짜기를 자꾸만 내려다 보았다.

밤이 깊어서야 형들은 돌아 왔다. 이 날 첫 새벽에 학권이는 말뚝 지뢰들이 꽂혀 있는 지점에 접근하였다. 그가 배밀이로 그 곳에 기여가 지뢰에 막 손을 대려는 순간 그만 적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그는 만일을 념려하여 빗'발치는 원쑤들의 총탄을 뚫으며 관봉 쪽으로는 달리지 않고 반대편으로 달리다가 어느 덤불 속에 숨어서 해를 보내고 이제야 산에 오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분공 실행 정형을 조직 앞에 보고하면서 자신을 준렬히 비판하였다.

《당원에게 무슨 구실이 있겠소. 나는 결국 경솔하게 행동하여 조직의 첫 분공을 잘 실행 못 했소. 정말 면목이 없소.》

맏형 학서가 다음에 말했다.

《난 마을에 내려 가 마을 형편과 적정을 대략 정찰하였다. 숱한 마을 사람들이 지금 례배당에 갇혀 있더라. 우리 어머니와 누이, 그리구 만삭이 된 너희들 형수도 갇혔다.》

맏형의 말을 듣는 두 동생의 눈에는 불이 일었다. 갖은 고문을 당하여 피투성이 된 어머니, 누이, 형수들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번갈아 안겨 왔다. 그들을 한시 바삐 원쑤들의 손에서 구출해야만 하였다. 즉석에서 세포 회의가 열렸다.

그들은 마을에서 원쑤놈들이 마음 대로 활개치지 못 하도록 타격을 줄 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한편 구월산과의 련계도 긴급히 맺으며 마을 인민들 속에서 해설 사업을 할 데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그리고는 주먹을 들어 이 세포 회의 결정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다음날 밤 학권이는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마을의 《치안대》에 접근하였다. 그의 손에는 학서와 학현이가 그럴듯하게 만들어 준 가짜 《수류탄》이 굳게 쥐여 있었다. 《치안대》 정문 옆에서 보초놈이 총'대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앉아서 졸고 있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놈을 처단하였다. 그리고는 치안대 문을 벌컥 열어 제꼈다. 놈들은 한창 술'상을 벌려 놓고 있었다.

《개새끼들아! 꼼짝 말았!!》

학권이는 벽력 같이 소리 질렀다. 원쑤들은 얼빠진듯 손을 번쩍 들었다. 학권이의 손에 쳐 들린 《수류탄》, 불이 펄펄 이는 뚝 부릅뜬 눈….

《우리가 가면 아주 간줄 알았드냐? 인민들에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 봐라!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장군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학권이는 사시나무 떨듯 하는 원쑤들을 비웃듯 쏘아 보고는 어둠 속으로 바람처럼 사라지였다. 그리고는 그 길로 조직의 결정 대로 구월산으로 향했다.

보라! 비록 손에 무장은 없어도 한 로동당원의 불굴의 사상과 정신력은 바로 이렇게 수십 명의 무장한 원쑤들도 제압하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뒤 놈들 속에서는 슬그머니 《치안대》 완장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자들이 생겼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 속에는 그 어딘가에 싸우는 당 조직이 힘 차게 숨 쉬고 있다는 생각과 필승의 신념을 안겨 주었다.

한편 학서와 학현이는 밤마다 마을에 숨어 들어 적정을 탐지하였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을 만나 해설 공작을 진행하였다.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삼 형제의 당 조직은 인민들의 가슴에 불씨를 안겨 주며 힘 차게 숨 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초막 안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작전을 토론한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왜정 땐 정말 고생두 많았지.》

《형님, 정말 잊혀지지 않수다. 너무도 배가 고파서 바다에 나가 조개랑 뜯어 먹군 했지요.》

원래 그들의 아버지는 한뉘 머슴을 살았다. 그래서 30이 넘도록 터벅머리 총각으로 있다가 자기보다 20 년이나 손 아래인 처녀에게 장가라고 들어 살림을 시작하였다. 어찌나 찢어지게 가난했던지 안해와 어린것들은 입을 것이 없어서 겨울이면 방안에 깔아 놓은 북데기 속에 오골오골 들여 박혀 지내군 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이 곳 왜놈들의 《제탕 회사》 농장 땅을 조금 얻어 부쳤다. 가을이 되면 공출과 도조와 장리로 다 빼앗기고 나면 타작 마당에는 헌 비'자루 밖에 남지 않았다. 한 번은 그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했다가 농장 마름 박 근배라는 놈에게 된 매까지 맞았다.

아버지는 지지리 고생 끝에 얻어 만난 병으로 림종하실 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나 장차 제 땅을 가지구 농사해 봤으면 여북 좋겠니?》

그것은 아버지의 한생을 두고두고 품어 오던 소원이였다.

결국 해방이 돼서야 그 오랜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들은 땅을 분여 받았다. 생활은 풍족해 가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청춘이 되돌아 온듯 웃음이 가실 날이 없었다. 그런데 원쑤들은 또다시 그들 일가의 생활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것이다.

《정말 다시는 옛날처럼 살 수 없지요.》

《오냐! 그렇구 말구, 그러기 우리는 제국주의 원쑤놈들과는 대를 이어 가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런데 그들의 초막이 불시로 원쑤들에게 포위 당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후에 안 일이지만 학권이의 《수류탄》 사건이 있은 뒤 원쑤놈들은 벌써 며칠째나 이 부근 산을 샅샅이 뒤지다가 이 날 그들의 초막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원쑤들은 사면에서 조여 들고 있었다.

정황은 몹씨 위급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생포하려는 적들에게 바위'돌을 굴리며 끝까지 항거해 싸웠으나 너무도 적들의 력량이 우세한지라 끝내 붙잡히우는 몸이 되고 말았다.

《으흠! 네 놈들을 이제야 잡았구나! 그래 나를 모르겠냐?》

쳐다보니 옛날 왜놈 《제탕 회사》 농장의 마름아치 박 근배란 놈이 아닌가! 어제'날엔 왜놈의 개가 되여 조선 사람을 못 살게 굴던 놈이 오늘은 다시 미군 잠바를 걸치고 이 땅에 기여 든 것이다. 아버지를 학대하던 원수놈, 당장 이 놈을 요정 내고 싶었다.

《그래 학권인 어디 갔냐?》

가슴에 꾹 찔리우는 선뜩한 권총'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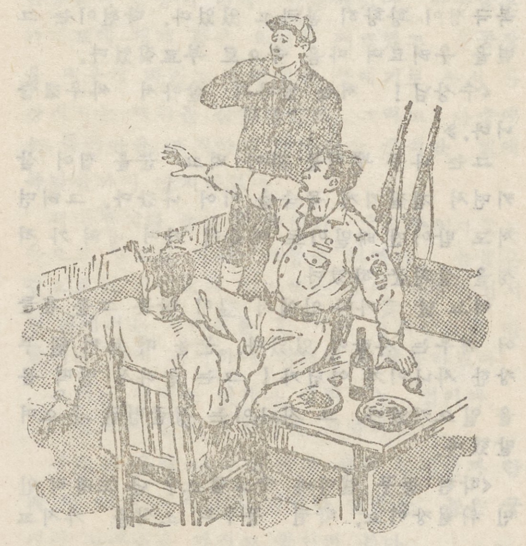
《모른다.》

《목숨이 아깝거던 어서 대라!》

《로동당원들은 이런 일을 흥정할 줄 모른다.》

그들은 원쑤들에게 끌리여 관봉 골짜기를 빠졌다. 재삼스러운 눈으로 고향의 하늘이며 바다며 벌을 바라 보았다. 얼마나 정답고 아름다운 하늘이며 바다며 벌이냐! 그들은 바로 여기에서 《엄마》라는 첫 말 마디를 배웠고 소꿉시절 주린 창자를 채우려고 바다'가에 나가 조개도 땄으며 온갖 생활고에서 흐르는 짜디짠 눈물도 맛 보았다. 바로 여기에서 해방의 기쁨도 맛 보았고 보람찬 청춘의 나날도 보냈다. 바로 이 벌에 보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젊은 힘과 정열은 얼마나 쏟아 부었던 것인가! 고향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원쑤에 대한 증오가 가슴을 에이는 듯 하였다.

이 때 학현이의 머리에는 그 어떤 결심이 굳어져 가고 있었다. (이 놈들에게 양처럼 끌려가 보람 없이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탐지



한 적정을 장차 조직에 전해 줘야 할 게 아닌가! 형님만이라도 살리자! 이것은 피를 나눈 형제의 의리라기보다 로동당원으로서의 고귀한 의무다.)

긴장해서 짬을 노리다가 그는 박 근배놈의 면상을 힘껏 받아 넘겼다. 그리고는 형을 슬쩍 밀쳤다. 《치안대》놈들이 일시에 와락 덤비며 달려 들고 쓰러졌던 박 근배놈이 권총'부리를 겨누며 일어 났다. 바로 그 순간 형은 그 권총'부리를 막아 서면서 벽력 같이 소리 질렀다.

《학현아! 네가 빨리 뛰여라!》

《땅!》총'소리가 들리는 순간 학현이는 옆에 있는 도랑을 허양 뛰여 넘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숲 쪽으로 곧추 내달렸다. 뒤에서 형님이 웨치는 《조선 로동당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탄알이 비'발치듯 날아 왔다. 형은 자기 목숨으로 동생을, 아니 그보다도 몇 갑절 더 귀중한 혁명 동지를 구출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산'줄기를 타고 며칠, 학현이는 학권 형과의 제 2 상봉 장소로 약속된(만일을 위하여 학권이는 구월산으로 떠날 때 그런 약속을 했었다.) 불타산 줄기의 도경리 뒤'산 숯가마 자리에 이르렀다. 한 알의 량식도, 한 가치의 석냥도 없었다. 살아 나갈 일이 기가 막혔다. 그러나 그는 다음 순간 결연히 자기를 꾸짖기 시작하였다. (그 어떤 환경에든지 당원인 너에게는 비관할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 끝까지 살아서 원수를 쳐야 한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키였다. 북쪽 하늘에서 북극성이 황황히 불타고 있었다. 학현이는 그 별을 우러르며 마음 속으로 부르짖었다.

《수상님! 저는 끝까지 살아서 싸우겠습니다.》

그는 나무 뿌리를 캐아 먹고 눈을 집어 삼키면서 검질기게 목숨을 이어 나갔다. 그러면서도 밤이면 배밀이로 마을에 기여 내려 가 적정을 살피군 하였다.

어느 날 숯가마 안에서 깊이 잠든 그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었다. 눈을 떠 보니 웬 무장한 사나이가 아닌가! 그는 놀라서 벌떡 몸을 일으키였다. 그 사나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학현 동무 얼마나 수고했소? 난 도경리 인민 위원장이오. 학권 동무의 소식을 가지고 왔소.》

학현이는 와락 그 사람의 품에 안겼다. 그 사람은 담배 한 대를 붙여 물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학현 동무! 나도 역시 구월산으로 찾아 가던 중 자네 형을 만났네. 우리는 그 때 여섯이였지. 도저히 구월산으로 빠져 들어 갈 수는 없었네.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과 싸우기로 하고 단독적으로 다니는 적병들을 까고 몇 자루의 총과 수류탄을 얻었네. 그것으로 적들의 강점 지구에 바람처럼 드나들면서 <치안대>놈들을 처단하고 인민들을 구출하였자. 그러다가 한 번은 그만 포위되고 말았네. 그 때 학권 동무는 동지들을 구출하려고 적들을 자기 일신에 유인하였네. 그는 원수들에게 정녕 붙잡힐 위험이 생기자 수류탄을 안고 놈들의 무리 속에 용감하게 뛰여 들어 갔네… 학권 동무는 정말 용감하게 싸웠네.》

《아, 형님!》

학현이는 눈물을 삼키면서 모자를 벗었다. 그의 눈앞에는 수류탄을 쳐들고 황황 불타는 눈으로 원수들의 무리 속에 뛰여 드는 형의 장한 모습이 떠올랐다. 참말이지 그런 형을 가졌다는 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자, 그러구 학현 동무! 슬픈 소식을 전했으니 이 번엔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지금 인민 군대가 재 진공하고 있네! 벌써 장연을 해방시켰네.》

《네!? 그래요!》

순간 가슴 속엔 산악같은 감격의 선풍이 일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다리던 시간이였던가! 그는 이 때까지 자기들이 탐지한 적성을 한권 형의 비보를 가져 온 도경리 인민 위원장에게 세세히 보고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학현이는 진격하는 아군부대와 함께 원수를 치면서 마을에 들어 섰다. 그는 당으로부터 면 자위대장의 직책을 맡고 패잔병 소탕전의 앞장에 나섰다. 그는 어느 지점에 매복했다가 패잔병 무리들을 삼'대처럼 쓰러 눕히기도 하였고 부성리에서는 단독으로 원수들에게 수류탄 벼락을 안기여 수십 명의 적을 몰살시키기도 하였다. 복수자의 칼날은 언제나 가혹하고 무자비한 법이다.

룡연 땅에서 원수들이 완전히 소탕된 날 면당 위원장은 그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고서 말했다.

《학현 동무! 동무네 삼 형제 당 조직은 지조를 굽히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잘 싸웠소. 감사를 드리오.》

세상에 당으로부터 받는 이런 평가, 이런 감사의 말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으랴! 학현이는 목메여 부르짖었다.

《면당 위원장 동지! 저는 이 땅에서 원수들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끝까지 총을 놓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김 봉

가네포의 위대한 승리

—가네포를 참관하고—

김 득 준

활활 타 오른 가네포 성화

붕 카르노 경기장은 가네포의 서막을 앞두고 떠나갈듯한 환호 속에 잠겨 있었다. 가네포에 참가한 51 개국의 기'발이 나붓기고 2천 3백여 명의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의 분렬 행진을 환영하는 10만 관중의 환성이 그칠 줄 몰랐다.

《코레아!》《코레아!》

자모 순에 따라 서른 한 번째로 우리 대표들이 입장하자 군중들은 더욱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였다. 우리 대표단이 주석단 앞을 지날 때 수카르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 서서 오래오래 손을 흔들며 답례까지 하여 주었다.

1963년 11월 10일 오후 4시…

《…우리의 구호는 오직 전진이며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힘 있는 목소리가 방금 위대한 사변의 탄생을 고하였다. 21 발의 축포가 발사되고 각양 각색의 고무 풍선이 오른다. 《가네포 찬가》가 울리고 정열에 불타는 아름다운 야자섬의 나라 하늘 높이 《가네포 기'발》이 게양되였다.

이 때 인도네시아의 체육인 하룬 알라스지드가 홰'불을 들고 달려 와 가네포 성화대에 불을 달아 놓았다.

낡은 세력을 물리치고 있는 신흥 세력 인민들의 기세인듯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자아내게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신흥 세력이 저 가네포 성화의 불'길을 지피기까지 얼마나 치렬한 투쟁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가네포를 파괴하기 위하여 각방면으로 파괴 음모 활동을 다 하였다. 가네포 개막을 10일 앞두었을 때 그 당시 백악관의 두목이였던 케네디란 놈은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가네포는 침략적이다. 그러니 가네포가 진행되는 날에는 인도네시아에 주던 미국의 <원조>를 중지하겠다. …》고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인도네시아가 진보적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에 미쳐 날뛰는 반동들의 준동이 더욱 극심해졌다. 반동들은 가네포에 대해 갖은 요언을 퍼뜨렸고 운동장을 비우게 하려고 관람권을 무더기로 사서 사장시키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폭력단을 조직하여 개막식장 주석단 밑에 폭발물까지 장치하였다.

제국주의의 충실한 졸개인 수정주의자들도 음으로 양으로 되는 책동을 하였다. 놈들은 겉으로는 가네포에 참가하는 듯이 가장하면서 뒤'전에서는 가네포를 한 개의 유희장으로 만들거나 아예 파괴하여 버리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다.

가네포는 끝내 성황리에 개막되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신흥 세력 인민들과 함께 이 위대한 사업에 기여한 일들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 본다.

《조선 선수들의 도착은 가네포의 성공을 의미한다.》

우리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이러한 기대 속에 10월 29일 쟈카르타에 도착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전원 270 명으로 구성된 강력한 대표단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기대는 그 대표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였다.

《쟈카르타 시민들과 가네포 참가자들 앞에서 공연한 조선의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강력



한 천리마 정신—조선에서의 사회주의를 촉진시키는 천리마—으로서 자체의 자원에 완전히 립각하여 제 사회를 건설하는 인민들을 알게 한다. 우리는 또한 그들의 예술을 통하여 제 인민과 친선으로 굳게 뭉친 그러한 인민들을 알게 된다.》

가네포 개막 전부터 우리의 도착은 인도네시아 인민들 속에서 이런 반향을 일으키게 하였다.

…낡은 세력을 압도할 신흥 세력의 힘은 바로 저 성화처럼 기세차게 타 오르고 있지 않는가!

높이 떨친 조선의 기상

경기가 진행되던 첫날부터 우리 선수들은 당이 준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잘 싸웠다. 11일 리 홍천 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력기(56 키로 그람급 용상)의 세계 기록을 또다시 깨뜨렸다. 신 금단 선수는 이날 륙상 200 메터 경기에서 1위를 하여 금메달을 받았고 다음 날은 800 메터 경기에서 세계 기록을 갱신하였다.

자카르타는 이 경의적인 성과로 하여 더욱 들끓었다.

《신 금단은 자기 나라의 위신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를 당당한 국제 체육 무대에 올려 세웠다…》

가네포가 이룩한 성과는 조선 청년들이 떨친 높은 기상으로 하여 더욱 높아졌다. 벌써 자카르타에서 출판물들은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세력을 물리치고 신흥 세력의 실제적 력량을 세계에 시위하였다.》고 힘차게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기여한 큰 성과가 안받침되고 있는 것이였다.

이 때마다 우리는 조선에 태여남을 무한한 행복으로 생각하였다. 우리는 생각하여 본다. 무엇이 우리에게서 그런 힘이 솟도록 하는 것일가?

1963년 11월 13일 아침

《국제촌》 우리 대표단 숙소 앞에 우리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이 모두 모였다. 여기서 우리는 수상 동지의 축하문을 감격에 넘친 눈물과 함께 접수하였다.

수만리 이국 땅에 와 있는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위대한 당과 위대한 수령! 우리는 어버이 수령의 품에서 자랐고 그의 의지를 본받아 이처럼 영예를 떨치게 된 것이다.

방금 출전을 앞둔 신 금단, 김 안홍, 전 만홍 선수들도, 예술인들도 수령의 배려에 보답할 결의들을 다지였다.

우리는 뛰는 가슴을 안고 붕 카르노 경기장으로 달려 갔다.

그러나 한편 이 날 400 메터 경기에 출전해야 할 신 금단 선수의 건강이 몹시 걱정스러웠다. 벌써 사흘째 경기에 나가는 그가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이겨 내야 하였겠는가. 적도의 염열이 내려 쪼이는 불가마 속 같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에 단련되지 못한 우리는 앉아 있기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저만치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금단 동무를 말 없이 지켜 보았다. 그는 경기 직전에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마 그는 이 시각에도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외워 보는 것이였으리라!

이윽고 금단 동무가 출발선에 나섰다. 10만 관중의 시선은 세계 기록 보유자인 신 금단 동무에게 쏠리고 있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금단 동무는 제일 앞에서 달리였다. 금단 동무는 400 메터에서도 51 초 4로 자기의 종전 기록을 0.5 초나 단축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2 위한 선수는 그보다 6 초 3 이나 뒤떨어져 결승점에 들어 섰다.

이렇게 금단 동무는 이틀 동안에 2 개의 세계 기록을 세웠고 륙상에서 《세계 최초의 3 관왕》이 되였다. 당에 충직한 딸 금단 동무는 어떠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이 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야 말았다.

《천리마 신 금단!》

《조선의 번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우리 축구 선수들은 매 번의 대전에서 용감히 싸워 완강한 투지와 능숙한 기술을 시위하였다. 그리하여 처음 소말리와의 대전에서 14:0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이겼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강팀의 하나인 우루과이 팀과는 4:0으로, 인도네시아팀과는 5:1로 이겼다. 그러하여 우리 축구는 아련 팀과 결승하게 되였다. 이 경기는 가네포의 페막을 장식하는 경기였다. 그 날 경기는 수카르노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12만여 명의 관중들이 모인 세나얀 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경기는 기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의 완전한 우세를 보여 주었다.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째인 방어와 완강한 공격에 당황한 상대방은 란폭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때 정황을 인도네시아 출판물들은 이렇게 론평하였다.

《인도네시아의 10여만 관중들은 세나얀 중앙 경기장에서 높은 기술로 뽈을 다루는 우수한 축구 경기를 관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상한 체육 도덕과 졸렬한 행위를 보았다. 조직력이 강하고 단거리 련락과 조약에 있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조선 팀에 의하여 궁지에 몰려 들어 간 아련 팀은 수치에 못'이겨 성을 내 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란폭한 행위를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기는 1:1로 비겼다. 대회 결정에 따라 추첨이 진행되였다. 기술이 높고 품행 좋은 조선이 추첨에 의하여 지고 기술이 낮고 품행 나쁜 아련 팀이 추첨에서 이겼다…

조선 축구 선수들은 자기의 실력으로 금메달보다 귀중한 영예를 쟁취하였다.》

많은 경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유술 경기였다. 이 날 유술 경기 80 키로 그람급에 출전한 김 안홍 동무는 유술의 본고장으로 이르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선수인 스즈끼를 비롯하여 4 명이나 물리치고 결승전에 오르게 되였다.

결승에서는 쏘련의 6 척 장수 까라쎄크와 맞서게 되였다. 그는 쌈보 기술을 겸한 무적의 선수로 알려지고 있었다.



이 때 김 안홍 동무는 4 회의 경기를 거쳐 지칠 대로 지쳤다.

경기가 시작되자 강적과 맞선 안홍 동무는 여러 차례나 위기에 빠질 번 하였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 갔다. 경기가 끝날 시간이 가까워 왔다. 경기를 지켜 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타 들어 가는 것만 같았다. 안홍 동무는 상대편을 한쪽 구석으로 끌어 갔다. 이 때였다. 그는 갑자기《얏!》소리 한 번에 상대를 멨다꽂았다. 6 척 장수의 몸뚱이가 공중에서 반원을 그리며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참으로 눈 깜빡할 사이였다. 장내에서는 폭풍 같은 박수 갈채가 터졌다. 우리가 안홍 동무에게로 다가 갔을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 지어 흘러 내리고 있었다. 경기장에 왔던 우리 모두가 울었다. 승리자의 영예를 쟁취한 이 마당에서 그는 왜 울고 있는 것일가. 우리들이 솟아 오르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 하고 있을 때 공화국기가 높이 오르고 있었다…

전 만홍, 황 관덕 동무들은 자기들의 무비의 완강한 혁명 정신과 인내성을 발휘하여 조선 청년의 높은 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한 선수들이였다.

13일 오후 4시 마라손 선수들은 세나얀 경기장을 출발하였다. 이 날 따라 날씨는 무섭게 더웠다. 아스팔트 길은 내려 쪼이는 염열로 해서 발'자국이 나도록 녹아 내렸고 거기에서 나는 냄새는 더구나 숨 막히게 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이러한 기후에 익숙되지 못했으나 곤난과 싸워 이겼다.

전 만홍 동무는 인도네시아 선수 아비딘 마르디고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우리 선수들은 세련된 규칙적 주'법으로 계속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7 키로 메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벌써 전 만홍 동무는 인도네시아 선수를 따라 앞섰고 12 키로 메터 지점에서는 100 메터 이상 앞섰다. 주로 주변에 겹겹히 늘어 선 군중들은 《코레아!》,《코레아!》하며 열광적으로 그들을 맞았다.

전 만홍, 황 관덕 선수들은 불과 5 메터의 사이를 두고 1, 2 착으로 결승선에 들어 섰다.

《조선 만세!》

《저들은 김 일성 수상의 나라에서 온 전아들이다.》

경기장 상공에 공화국기가 게양되고 우리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조선의 기상은 높이 높이 빛을 뿌렸다.

경기 대회 전 기간에 5 개의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였는데 그 중 3 개가 우리 선수들에 의해 수립되였다.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3 개, 은메달 68 개, 동메달 62 개로서 도합 143 개의 각종 메달을 받았다.

《천도 지국의 예술》

우리의 예술은 인도네시아 인민들과 가네포 참가자들의 심장을 틀어 잡았다. 11월 7일이였다. 이 날은 1만여 명의 관중들 앞에서 가네포 국제 예술 공연이 있었다. 이 날은 많은 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만큼 재청이 없다는 것이 선포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우리의 첫 곡목인 합창 《산으로 바다로 가자》가 끝나자부터 관중들은 계속 재청을 요구하였다. 녀성 중창이 끝났을 때다. 사회자는 다음 프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녀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있다. 방금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 와 노래 부르는 것 같다.》고 관중들을 향해 말했다. 그는 방금 전에 재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했던 것이다.

우리의 예술은 《천사의 예술》로, 《모두가… 황홀해지도록 하는 예술》로 그들 속에 절찬을 받았다. 이 날 인민 배우 현 책 동무는 무려 5창이나 불렀다. 그리하여 20 분간으로 제한되였던 우리의 공연은 1 시간 가량이나 진행되였다. 이 공연은 텔레비죤을 통해 인도네시아 각지에 방송되였다. 이 공연이 있은 후 우리는 동부 쟈바, 서부 쟈바의 성장들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각지의 수 많은 인민들로부터 꼭 자기네 고장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매일같이 받았다.

인도네시아 신문은 《축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의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연하는 조선 예술단의 공연이다.》라고 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예술인들은 우리 예술인들의 노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가의 모범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의 단막 가무극 《지상 락원》을 감명 깊게 본 한 평론가는

《… 가무극은 인민의 손에 의하여 '지상 락원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썼다.

18일 우리 예술단은 쟈카르타 항구 탄징프리오크의 부두 로동자들을 위해 야외 공연을 하였다. 이 날 공연은 1만 3천 명의 로동자들이 관람하였다.

합창이 끝났을 때 한 로동자가 돌연 일어나더니

《조선 만세!》라고 웨치는 것이였다.

× ×

가네포 폐막의 시각이 다가 왔다.

《…세계의 낡은 세력인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및 그 주구들은 낡은 시대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신흥 세력은 더욱더 장성하고 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가네포 폐막의 합창처럼 들렸다.

《…력사에는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다…조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분은 누구인가? 그는 김 일성 수상이다. 김 일성 수상의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목소리는 이 자리에서도 울리였다. 김 일성 수상의 목소리는 전 인도네시아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 인민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히듭 김 일성!》(김 일성 만세!)
《히듭 코레아!》(조선 만세!)

새 힘은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판》이 된 《개 싸움》

얼마 전 남조선에서는 《한일 개 싸움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데 그야말로 기상 천외의 장관이였다 한다.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한답시고 일본의 무슨 《정치인》이니 《경제인》이니 《문화인》이니 하는 갖가지 몰골을 한 《사무라이》들을 모셔 들이느라 야단법석이던 군사 깡패들이 이번에는 《한일 친선을 도모》한답시고 정식으로 《대한 민국 정부》의 초청장까지 발급하여 일본 개까지 모셔 들였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 경복궁 뜰에서 《한일의 명예》를 건 《개 싸움 대회》는 한바탕 시작됐다. 그런데 난처하게 된 것은 이 《친선》의 회합에서 량쪽 개가 한창 으르렁거리며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만 남조선 개가 거품을 뿜으며 일본 개를 보기좋게 물어 굴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새파랗게 기가 질린 남조선 주최측의 역원들은 자기쪽 개가 당당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하여 《한일 친선》에 금이나 가지 않을가 두려워 황망히 뛰쳐 나가 《개판이다 개판…》하고 《개판》을 선포했다. 그래서 경향 신문은 이 《개싸움 대회》가 결국 《개판의 한일 친선》으로 귀결되였다고 보도하게 되였다. 이 어찌 돌부처가 웃다가 배꼽 떨어질 노릇이 아니겠는가. 하기야 정치도 개판, 경제도 개판 모든 것이 개판 투성이인 남조선에서야 응당 있을 법도 한 일.



매개 사회주의 나라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하는 결정적 고리

전 진 석

매개 사회주의 나라를 강화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로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 그 자체가 매개 사회주의 나라로써 형성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은 그들 간에 공통된 목적과 사상, 공통된 계급성과 리해 관계로 하여 호상 불가분리의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사회주의 진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매개 사회주의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의 기본 단위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의 힘이 강화되자면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사람들의 육체와 사상이 건전해야 하듯이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하자면 그의 기본 단위로 되고 있는 매개 사회주의 나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이다.

매개 사회주의 나라를 강화할 때 곧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강화될 것이요, 반대로 매개 사회주의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만일 사회주의 진영 내의 어떤 나라가 자기의 혁명 진지를 튼튼히 꾸리지 못 하고 형제 나라들의 협조만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곧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잘 할 수 없을 것은 물론이고 형제 나라들에게까지 부담을 줌으로써 결국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력량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도 매개 사회주의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국제 로동 계급이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 앞에 분공한 위임이기도 하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실제의 국제주의는 하나, 오직 하나 뿐이다. 즉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 운동과 혁명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며, 례외 없이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투쟁과 로선을, 오직 이 한 로선만을 지지하는 (선전으로써, 동정으로써, 또 물질적으로) 것이다.》

매개 사회주의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혁명 진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로동 계급과 인민 대중이며 그의 령도적 력량인 맑스-레닌주의 당이며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의 내부적 력량이다.

혁명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나라의 혁명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 줄 수 없다.

따라서 매개 사회주의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어떻게 진척되며 그것이 어떤 심도로 수행되는가, 혁명이 언제 승리하는가 하는 것은 주로 그 나라 혁명

의 성숙 정도와 자체 력량의 준비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것 만큼 자기 나라의 혁명 진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자체의 내부 력량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력 갱생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리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인다운 책임적 립장이며 투쟁 원칙이다.

물론 이것은 형제 나라들 간의 호상 협조와 원조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형제 나라들이 호상 협조하고 원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그러므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사상에 기초할 때만이 매개 나라의 혁명 진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전 기간에 걸쳐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사상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혁명적 민주 기지인 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실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는 자기 손으로 만든 현대적인 공장에서 강재도, 대형 기계, 정밀 기계 등도 생산하며 천도 짜고 농기계도 척척 만들어 낸다. 실로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것이든 해 내지 못할 것이란 없게 되였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령도와 자력 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킨 결과이다.

우리 당이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견지하고 관철시킨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혁명 기지를 하루 속히 강화하여야 할 절실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국제 사회주의 혁명 력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철저히 맑스-레닌주의적인 로선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로선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중요한 과업은 우선 우리 나라 자체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자각적으로 동원되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의 애국적 의무이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국제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당의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은 나라의 경제 건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표현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함에 있어서 자위적 립장에 기초하여 제때에 인민 무장력을 창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강화 발전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무력 간섭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의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은 또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를 강화한 데서도 표현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이 촉진될수록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전복된 착취 계급의 온갖 음모 책동을 분쇄할 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 도덕적 통일을 강화하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민들의 자각성을 남김 없이 조직 동원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이 견지하고 관철시킨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령도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훌륭한 전통으로 이룩되였으며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 발전된 것이다.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력 갱생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거부하고 이것을 남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 그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더디게 하며 국제 분업을 잘 할 수 없게 한다고 한다. 그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민족주의적 편향》이요, 《페쇄적 경제》요,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경제적으로 유해로운 로선》이라고 비방하면서 그 대신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 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 통제하는 《통합 경제 기구》를 창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마치 어느 한 나라의 무장력과 최신 군사 기술만이 사회주의 진영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듯이 떠벌리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청소한 나라들의 《민병》을 군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고기'덩이》에 비유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이미 《적대 계급이 청산》되였으며 《진압의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자기 사명을 다한듯이 말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이 모든 견해는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인연이 없다.

만일 제 손으로 매개 나라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척척 만들 수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만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만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은 무력한 존재로 남아 있게 될 것은 물론이고 남의 나라에까지 구걸을 해야 하며 제국주의 침략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위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오직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같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지고 그 힘이 단합될 때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강화되며 나아가서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과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성세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형제 나라들의 자립 경제 건설과 자위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 형제 국가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자립을 달가와 하지 않으며 그 나라들을 락후한 채로 남겨 두고 압력을 가하여 자기에게 복종시키려는 기도 이외는 달리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 협조와 호상 원조에 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 관계의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모든 현실은 자력 갱생에 기초한 우리 당의 정책과 로선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발양함으로써 우리의 혁명 진지를 강화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적 전진에 기여할 것이다.



진정한 국제주의자와 거짓 국제주의자

박 일 병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본질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서 세계의 각국 로동 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호상 지지 원조하는 데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한 측면에서는 자기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과 모든 반제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이 량 측면의 불가분리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구현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이러한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첫째로,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나라의 혁명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세계의 모든 나라 로동 계급의 민족 부대들의 혁명 투쟁으로 이루어진다. 세계가 각이한 민족 국가들로 형성되여 있는 만큼 국제 공산주의 혁명은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의 성과적 수행에 의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진정한 국제주의자들의 수되는 임무는 우선 자기 나라의 혁명을 잘 하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나라 혁명을 잘 함으로써 국제 공산주의 혁명 부대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앞에 지닌 국제주의적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국제 혁명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자기 나라의 혁명을 떠나서 국제 혁명을 부르짖는 것은 하나의 말'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민족 허무주의의 표현이다.

혁명이란 원래 소여 나라 내부의 계급적 모순의 첨예화가 기본 요인으로 되여 일어 나는 만큼 혁명은 수출할 수도 수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나라의 혁명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이 책임져야 한다. 조선 혁명의 주인은 바로 조선 인민 자신이며 조선 혁명은 다름 아닌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이 수행한다.

물론 매개 나라의 혁명 수행에서 국제 로동 계급의 지지 성원은 혁명 승리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이 련대성은 그 나라의 혁명 승리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는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매개 나라의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주체적 력량이며 또 국제주의적 원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주체적 준비와 노력이 없이는 그 원조는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 하기 때문이다.

자기 나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수행하려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남의 힘을 빌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만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형제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유무 상통할 수 있으며 이 나라들과의 호상 협조와 분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주의자의 가면을 쓴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국제주의, 국제 분업의 원칙과 인위적으로 대치시키면서 이것을 《페쇄적 경제》요,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고립화의 길》이요, 지어는 《민족주의》요 뭐요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이 나라들을 결정적으로 예속시켜 저들의 수정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이다.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들이 세계 로동 계급의 전반적 리익을 저바리고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는 부르죠아 민족주의적인, 민족 배타주의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그들이 제아무리 입으로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부르짖지만 실은 거짓 국제주의자라는 것을 폭로해 줄 따름이다.

자력 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잘 수행하려는 원칙이며 그리하여 이것은 국제 혁명에 잘 기여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자력 갱생은 가장 철저한 애국주의이며 동시에 철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이다.

둘째로,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혁명도 있을 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도 있을 수 없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한 나라의 로동 계급이 자기 나라의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투쟁은 전체 제국주의 진영 특히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인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자기 투쟁의 첫 구호로 제기하지 않는 한 그가 아무리 사회주의 혁명이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요란스럽게 떠든다 하여도 그것은 빈말'공부에 불과하며 그가 다만 거짓 국제주의자임을 폭로할 따름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세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저바리고 제국주의 특히 미제와 공공연히 야합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들은 반제 투쟁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련계는 평화적 합작으로 보장되여야 한다.》느니, 미제의 침략적 본성이 변하였으므로 그와의 《친선》은 《불변의 원칙》이라느니 하고 떠들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배신적 립장으로부터 미제의 두목을 《미국 인민의 수령》, 《리성적 인간》, 《평화 투사》로 묘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제국주의자들과 친선과 협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세계 혁명을 교살해 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달갑게 받아 들인다는 것으로 된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친선과 협조를 운운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계급 투쟁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

진정한 국제주의자들인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선심》도, 《친선》도 필요 없고 다만 반제 투쟁에서 로동 계급과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과의 통일 단결을 강화할 임무가 있을 뿐이다.

세째로,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이야말로 제국주의 세력에 타격을 주고 있는 가장 위력한 전 세계 로동 계급의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며 우리 시대의 모든 진보적 력량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혁명 력량의 주력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 있다. 오직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이 보장될 때만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이

보장될 수 있으며 세계의 모든 반제 혁명 력량의 단결이 보장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그의 단결의 힘은 이 진영 내 인민들의 운명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진영의 강대성은 10억의 인구를 망라한 이 진영이 하나의 전일체로 굳게 통일 단결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느 한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며 그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혁명적 임무로 된다. 특히 사회주의 진영의 3 분의 2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강대한 중국의 존재와 그와의 단결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그 위력의 강화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그가 진정한 국제주의자인가 거짓 국제주의자인가를 재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세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배반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입으로만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떠들지 실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협조에 주로 기대를 걸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제국주



주구+주구=2중 주구

의자들과 합세하여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은 미제의 주구인 유고슬라비야의 찌또 도당을 사회주의 진영에 끌어들이며 그와 반면에 위대한 사회주의 중국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떼 내려고 획책하고 있는 데서 가장 로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찌또 도당은 혁명을 배신한 반역자이며 미제와 야합하여 사회주의 진영을 헐뜯드는 추악한 변절자이며 국제 혁명의 원쑤이다. 따라서 찌또 도당에 대한 태도 문제는 곧 그가 사회주의 진영을 고수하고 세계 혁명을 추진시키려는 진정한 국제주의자이냐, 입으로만 세계 혁명과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부르짖는 거짓 국제주의자이냐를 가를 수 있게 한다.

지금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이편 저편으로 갈라 놓으면서 어제는 저 나라를 고립시키고 오늘은 이 나라를 고립시키는 악랄한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저버리고 오직 자기들의 분렬주의적 목적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는 수정주의자들의 이 모든 반역적 반 국제주의적 행동을 반대하며 이 진영의 통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여야 한다.

네째로,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세계 혁명이 승리하자면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의 혁명 투쟁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 그리고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이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의 투쟁의 성과 여부도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가 못 받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무력으로까지도 직접 원조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국제주의자들이 지켜야 할 숭고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임무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식민지는 그들의 생명선이다.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그들은 식민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며 식민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 원조하는 것은 전 세계 로동 계급의 필수적 과업이며 특히 주권을 전취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억제하는 참을 수 없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친선》과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착취 받고 억압 받고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있다. 그들은 《한 점의 불꽃도 세계 핵 전쟁을 일으켜 전 인류를 멸망케 한다.》고 지껄이면서 식민지 인민들이 무장 투쟁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으며 마치도 유엔을 통하여 《희생 없이 해방》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퍼뜨리고 있다. 지어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인민들이 콩고 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를 반대하여 시위를 단행하자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일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원쑤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간악한 원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다섯째로,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을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자국의 부르죠아지, 제국주의자들을 전복하는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투쟁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용이하게 해 주며 식민지 약소 국가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제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계급적 해방을 위한 자기들의 투쟁에서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과 각국 로동 계급으로부터 국제주의적인 지지 성원을 받고 있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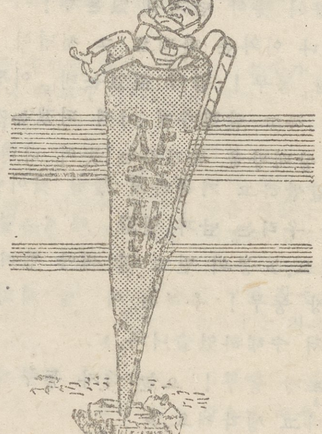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로동 계급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지지 성원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에 대한 지지 성원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은 숭고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임무로 된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포기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줄 대신 오히려 그에 해독적 작용을 놀고 있다. 그들은 공산당을 비법화하려고 책동하며 공산당원들과 로동 계급의 진정한 대표자들을 학살하는데 광분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리하여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말로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운운하면서 실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자로 되고 있다.

오늘날 진정한 국제주의자들 앞에는 이상에서 말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제반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석 같이 지킴으로써 현대 수정주의자들로부터 거짓 《국제주의자》의 가면을 벗기고 이 자들의 파괴 책동을 분쇄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고수하고 세계 혁명을 촉진시킬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 놈을 집어 던져야 한다
(《조선 신보》에서)

언어 례절

박 수 영

말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때문에 말에는 사람의 사상과 인격, 수양 정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아무리 례절 바른 사람이라 하여도 말을 정확히 쓰지 못 하거나 또 말투가 곱지 못 하면 본의 아닌 오해도 사고 또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도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언어 례절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

편집부는 청년들의 언어 수양을 위하여 본 호부터 체계적으로 방조 자료를 게재한다.

1. 《높이는 말》

조선어는 상대편을 높여 말하는 존경어가 특별히 발달한 언어다. 그러나 아직 일부 청년들 중에는 이런 말을 정확히 쓰지 못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실수를 범한다.

그러면 우리는 《높이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상대방을 존경하며 그에게 존경의 뜻을 표시할 때에는 우선 정중하고 겸손한 몸가짐과 함께 그에 대한 존경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말을 골라 써야 한다.

례를 들어 보자.

《반장 동지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어서 댁에 들어 가 주무십시오.》

이것은 어느 한 청년이 자기의 작업반장에게 한 말이다. 여기에는 얼마나 깊은 인정미와 존경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청년이

《반장 동무! 밤이 깊었는데 이젠 집에 가라요.》 하고 말했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 때에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뜻이 나타나지 않고 몹시 쌀쌀하고 거북하게 들릴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남과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요.》 등의 말도 잘 써야 한다.

《반장 동무! 우리는 이 달 계획을 150% 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분조장 동무! 오늘 숙자 동무가 일을 참 잘 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상대방을 지극히 존경할 때에는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서로 친밀하고 허물 없는 사이인 경우에는 《그래요.》 하는 말투를 쓰는 것이 행결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을 듣군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청년들 중에는 이런 《높이는 말》을 잘 쓰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례를 들면

《1 작업반에는 누가 갔다 오겠소?》라는 웃사람의 물음에 《내가 갔다 오지.》하고 대답하는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명옥 동무를 못 봤소?》 하는 물음에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고 말끝을 채 맺지 않고 얼버무리는 동무들도 있다. 이런 것은 모두 웃사람인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데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화제에 오른 사람에 대해서도 《높이는 말》을 잘 써야 한다.

《위원장 동무는 오늘 회의에 가셨네.》

여기서 《가시다》는 회의에 간 사람인 위원장을 높이는 말이다.

《할머니가 오신다.》

《할아버지가 진지를 잡수신다.》

이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각각 높여서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우리 말에는 화제에 오른 사람이거나 직접 말하는 상대방을 존경하기 위해서

《시》라는 말을 더 넣어서 말하는 방법이 있다. 즉 《보다》의 《높이는 말》로 《보시다》 《일하다》의 《높이는 말》로 《일하시다》 등을 쓴다.

그런데 일부 동무들은 이런 《높이는 말》을 제대로 쓰지 못 하고 있다.

가령 《위원장 동무가 어데 가셨니?》 하고 물을 대신에 《위원장 동무 어디 갔니?》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화제에 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일부 동무들은 편지를 쓸 때에 《존경하시는 선생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 《미안하시지만 말씀 좀·물읍시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높이는 말》에서 《시》를 잘못 쓰는 례이다. 생각해 보라! 존경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또 미안해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시》를 붙여서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다.

또 우리 말에는 《시》를 넣지 않고도 높이는 말이 얼마든지 있다.

례하면

《계시다》, 《탄생하다》, 《서거하다》, 《드리다》, 《잡수다》, 《말씀》, 《댁》, 《병환》등이 그러하다. 이것은 각각 《있다》, 《출생하다》, 《죽다》, 《먹다》, 《말》, 《집》, 《병》등의 《높이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풍부히 소유하고 또한 일상 생활에서 잘 가려 써야 한다. 《그 편지는 부장 동지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할 대신에 《그 편지는 부장 동지께 주었습니다.》라고 한다면 말의 례절을 옳바르게 지켰다고 할 수 없다.

《높이는 말》에는 《께》, 《께서》라는 말도 있다.

례:

《지배인 동지께서 벌써 나오셨니?》

《지배인 동지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지배인 동지가》, 《지배인 동지에게》와 같은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저 《지배인 동지가》, 《지배인 동지에게》 하는 것보다 존경의 뜻이 함뿍 더 진하게 담겨져 있다.

이상 몇 가지 실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말에는 《높이는 말》이 매우 다양하게 있다. 때문에 청년들은 이런 말을 잘 가려서 정확히 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예로부터 《동방 례의지국》인 우리 나라 인민들은 언제나 웃사람들을 지극히 존경하는 미풍을 지니고 있다. 이런 훌륭한 민족적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가 《높이는 말》을 쓰기 위한 노력을 그 어떤 까다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수양을 게을리한다면 결코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의 소유자로 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며 천리마 시대의 청년으로서도 심히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때문에 청년들은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의 하나인 《높이는 말》을 잘 쓰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며 거기에 습관을 붙여야 한다.

청년생활 소사전

분수와 건강

무더운 여름날에 하늘 높이 뿜어 오르는 분수 둘레에 앉아서 휴식하는 것은 참으로 상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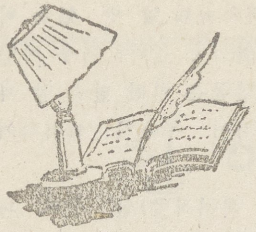
이런 곳에서 휴식하면 저도 모르게 기분도 좋아지고 활기를 띠게 된다.

이러한 것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물'살이 센 개울이나 폭포 곁에 있을 때에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분수가 뿜어 오를 때나 폭포가 쏟아질 때 생기는 아주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진 《물먼지》들은 아주 큰 치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그것은 물이 작은 방울로 되여 사방으로 떨어질 때에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이온들과 또한 중추 신경 계통과 심장 혈액 계통에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산소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작용을 리용하여 고혈압증과 기관지 천식증을 치료하면 효과가 크다.

여름에 분수 혹은 폭포 가까이에서 휴식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건강 상으로 매우 좋은 일이다.



엥겔스의 학습 태도와 학습 방법

1838년에 엥겔스는 17세로서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하고 완고한 아버지의 강제에 의하여 부레멘에 가서 어떤 상사의 서기로 들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때로는 망명 생활을 하고 때로는 상업 활동을 하면서 불면불휴의 정력으로써 국제 로동 운동을 령도하였다.

엥겔스는 이렇게 상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번망한 혁명 활동을 하면서도 잠시도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상업 활동을 할 때에 날마다 번잡한 사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짬이 있거나 혹은 밤에 일을 마치고 나면 시간을 내여 학습에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늘 침대를 화물 창고의 맨 웃층에다 올려 놓고 정력을 다하여 각종 서적을 열독하였다.

그가 얼마나 학습을 완강하게 하였는가는 다음 이야기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1849년에 혁명이 패배한 후 그는 제노아에서 영국으로 빠져 나가기 위하여 범선을 타고 바다를 장기간 항행한 일이 있었다. 자그마한 범선으로 대양을 건는다는 것은 여간 힘겹고 위험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엥겔스는 이 곤난한 조건에서도 각종 서적을 열독하였으며 특히 그는 이 기회에 항해상의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배 우에서 일기를 썼으며 태양 위치의 변화, 바람의 방향, 바다의 상태 등을 일일이 기록하고 그것을 세심히 분석 연구하였던 것이다.

그는 고령에서도 결코 독서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정력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과학을 탐구하였다. 그는 70이 넘은 로령으로 이브센과 켈란도를 읽기 위하여 노루웨이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루마니야의 실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루마니야어 학습에 착수하였다.

그는 이러한 완강한 학습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스물 네 살 때에 고전적 로작 《영국에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를 집필할 수 있었으며 그 후 계속 《반듀링론》,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을 비롯한 수 많은 로작, 저술, 론문 등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은 엥겔스의 간고한 학습 정신은 결코 그의 옳은 학습 태도와 학습 방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엥겔스는 맑스와 마찬가지로 리론을 실천과 결합시키는 학습 방법을 모범적으로 관철하였다.

엥겔스가 학습에 노력한 것은 결코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회 혁명의 실천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는 언제나 혁명적 리론을 학습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리론은 반드시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의 사상적인 무기로 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엥겔스는 사회 민주당의 위대한 투쟁을 우리 나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형태 (정치적 및 경제적 형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투쟁과 아울러 리론 투쟁도 가한 세 가지 투쟁 형태라고 인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엥겔스가 외국어를 많이 학습한 것도 역시 맑스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혁명 활동의 중요한 무기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20여개의 언어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그 후 국제 로동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커다란 방조로 되였던 것이다. 이 밖에도 엥겔스는 군사학, 자연 과학 등 다방면에 걸친 과학들을 학습하였는데 어느 것 하나 혁명 실천의 귀중한 무기로 되지 않는 것이란 없었다.

엥겔스는 산만하고 목적 지향성이 없는 학습과 진실치 못한 과학 연구를 견결히 반대하였다. 엥겔스는 언제나 주밀한 학습 계획과 과학적으로 타산된 면밀한 일과표를 가지고 학습하였으며 그 날에 계획된 학습은 그 날로 꼭 집행하고야 마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우편물이 올 때마다 구라파 각국어로 된 신문과 서신들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처럼 바쁜 가운데서도 그는 그것들을 다 통독하고 질서 있게 보관하고 그 중요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

그는 항상 제정된 일과에 기초하여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면서도 휴식을 옳게 배합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다. 특히 일요일이면 많은 휴식 시간을 내여 찾아 오는 손님들을 극진히 접대하고 그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군 하였다.

엥겔스는 놀랄만치 다방면에 걸친 과학을 연구하면서도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정통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무관심한 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박물학, 화학, 식물학, 물리학, 언어학, 정치 경제학, 력사학, 전술 등 모든 것에 그는 관심을 돌렸던 것이다. 그는 말년에 가서 산과학 (產科學)을 연구하기까지 하였다. 맑스는 일찌기 이러한 엥겔스를 가리켜 《진정한 백과 사전》이라고 말하였다.

엥겔스는 이처럼 많은 것들을 학습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가장 미미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갔으며 실제 자료를 많이 수집한 다음 깊이 사고하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군 하였다.

례하면 그는 초기 로작 《영국에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를 집필하기 위하여 사전에 직접 로동자들이 살고 있는 빈민굴로 돌아 다니면서 자기의 눈으로 그들의 불행과 고통을 목격하였다. 또한 그는 영국 로동 계급의 처지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 이전에 발간된 모든 서적을 통독하였으며 입수할 수 있는 관청 문서를 면밀히 연구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를 종합 분석한데 기초하여 집필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엥겔스는 기타의 저작을 집필하기 위하여서도 이와 같이 심오한 연구와 관찰을 하지 않은 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저작의 매개 구절은 모두다 과학적인 것이였고 모두다 객관적 진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였다. 사실 엥겔스의 기타 저작에 대해서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에서의 심오한 연구와 분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한 개의 단독적인 력사 실례에 있어서의 유물론적 관점의 발전이라 하더라도 역시 착실하여 연구해야 할 일종의 과학적인 사업인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용이 없는 말에 의존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판을 거쳐 선택한 다수의 자료 및 세심한 연구를 거친 다수의 자료만이 이와 같은 자료를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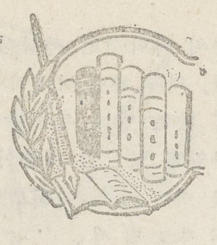
학습에서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고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어떤 결과도 거둘 수 없다.

엥겔스는 그처럼 곤난하였던 학습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강의한 투지와 노력으로 참답게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그처럼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민 영 철

『배우는 것은 쏘는 것과 같다。 쏘는 자는 그 지향을 목표에 두는 것이다。 지향을 목표에 둔다면 명중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목표는 멀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배우려면 지향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일정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

(리 수광)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

리 재 경

우리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량자를 옳게 결합하여 학습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조국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일반 지식이란 그 어떤 직업에 종사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일'군들이 사회 생활과 생산 활동에 참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이다.

례를 들어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적극 참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치 리론 과목과 어학, 문학,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리학, 체육, 음악 등에 대한 지식은 다 일반 지식에 속한다.

전공 지식이란 사회 실천적 활동 특히 생산 활동의 어느 한 부문에서 일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과학 기술적 지식을 말한다.

전공 지식은 현대 생산의 광범하고 다양한 부문에 따라 세분되여 있으며 무한히 다양하다.

기계 제작을 전공하는 일'군들의 전공 과목으로써는 금속학 및 열처리, 기술 측정, 금속 절삭 공구, 공작 기계, 기계 제작, 공업 경영학 등을 들 수 있으며, 농학을 전공하는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작물학, 육종 및 채종학, 식물 보호학, 농기계학, 축산학 기본, 과수 및 채소학, 농업 경영학, 농촌 수리화 등이 그 전공 과목으로 되고 있다.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의 한계는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과거 봉건 지배층들의 교육 기관에서 일반 지식으로 숭상하던 《사서 삼경》은 오늘 우리의 일반 지식으로 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혁명적 량식으로써 모든 일'군들에게 요구되는 일반 지식이다.

과학 기술이 락후하던 과거에는 전공 지식으로 간주되던 과목들, 례를 들어 유기 화학, 분석 화학, 무기 화학 등은 오늘 자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반 지식으로 되고 있다.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의 한계는 또한 사람들의 전공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례를 들어 문학, 수학 등은 모든 일'군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일반 지식으로 되지만 작가 수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문학은 전공 지식이며 수학은 일반 지식이다. 반대로 수학 교원에게 있어서는 수학이 전공 지식이고 문학은 일반 지식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이 가지는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일반 지식의 의의는,

첫째로, 그것이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데 있다.

우리들은 조선 로동당 력사, 당 정책, 국제 로동 운동사, 정치 경제학, 철학, 조선어와 문학, 력사, 지리 등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이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당 정책을 배우며 조선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우리 당의 력사를 배운다. 이리하여 사회 발전 법칙과 계급 투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계급적 각성과 당에 대한 충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당 정책 관철과 혁명 임무 수행에서 물불을 헤아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은 조국의 해방과 공산주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혁명 선배들과 혁명 전통을 계승한 로동 당원들과 천리마 기수들의 공산주의적 품성을 배우게 된다.

둘째로, 일반 지식의 의의는 그것이 모든 생활, 모든 직업적 활동의 기초 지식으로 된다는 데 있다.

례를 들어 우리들의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당 정책을 모르고서는 우리 나라의 그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도 훌륭히 참가할 수 없으며 모국어와 우리 나라의 력사, 우리 민족 문화의 빛나는 성과를 소유하지 못 하고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나 정치적, 과학 기술적 활동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과 같은 일반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여야만 어떤 생활, 어떤 직업적 활동에도 잘 준비할 수 있으며 현대 과학 기술의 전반적 성과들도 잘 습득할 수 있다.

세째로, 일반 지식의 학습은 청년들의 문화성을 높이며 문화 혁명을 추진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우리들의 문화성을 높이는 것은 계급 의식을 높이고 과학 기술 수준과 정치 실무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서 필수적 전제로 된다.

일'군들의 문화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간부들은 물론 전체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우리 나라 문화 혁명의 기본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일반 지식은 청년들의 인격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요구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모든 청년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학 이상의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민학교 또는 초중 이상의 지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성인 교육 사업에 솔선 참가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확고한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소유하는 동시에 풍부한 일반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어떤 복잡한 정황 속에서도 당황함이 없이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으며 편견과 주관에 구애됨이 없이 문제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다.

전공 지식의 의의도 지극히 중요하다. 전공 지식은 우선 모든 사람들을 생산 로동에 준비시키며 일정한 직업에 준비시킨다.

더우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시기에 있어서 자기의 혁명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일정한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금속 절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이 절삭 기대를 다룰 수 없으며 농산과 축산에 대한 지식이 없이 농산과 축산 작업반의 생산 작업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전공 지식 없이, 직업적 준비 없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할 수 없으며 혁명에 헌신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리론과 실천을 결부시켜 새 세대를 일정한 부문의 로동에 숙련시키며 일반 지식과 직업적 기능을 동시에 체득》시킬 것을 교시하시였다.

× ×

그러면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의 호상 관계는 어떠하며 이를 잘 결합하여 학습하여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의 호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지식이 전공 지식의 기초로 되며 전제로 된다는 데 있다.

특히 일반 지식에 포함되는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 학습은 기술 과목과 기타 과목을 학습함에 있어서 옳은 목적과 방향을 주며 과학적 학습 방법을 제시하며 학습에 대한 혁명적 정열과 투지를 북돋아 준다. 그러므로 어떤 부문에서 일하건, 무엇을 전문으로 하든지간에 누구나 의무적으로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을 학습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의 모든 전문적 지식은 물리, 화학, 수학 등 일반 지식에 기초해서만 습득할 수 있으며 실천에 적용할 수 있다. 농산, 축산 분야의 모든 전공 지식도 동물, 식물, 물리, 화학, 수학, 지리학 등의 일반적 지식에 토대해서만 리해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다. 일반 지식의 토대가 없이 전공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전공 지식은 일반 지식을 보충하고 심화하며 이를 실생활에 성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기계 공학을 전공하는 일'군이 물

리와 수학 지식을 보다 실'속 있게 리용할 것은 물론이며 합성 섬유에 대해 전공하는 일'군들이 유기 화학 지식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으며 의학과 체육을 전공한 일'군들이 인체 해부학과 생리학, 위생학적 지식을 심화하고 보다 잘 리용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낡은 사회에서는 그 계급적 모순으로 하여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은 기계적으로 분리되였었다. 봉건 통치 계급들은 생산의 관리 부문을 장악하고 국가 사회 생산을 지배하면서 일반 지식을 독점하였으며 수공업자, 농민, 로동자들에게는 보잘 것 없는 직업적 기술 지식을 주는 정도였다.

전공 지식을 일반 지식과 인공적으로 분리시키고 천시하는 경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존속되였다. 과거 일제는 실업 학교니 실업 보습 학교니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협소한 직업적 지식을 주어 값싼 임금 노예를 준비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실시하고 있는 실업 교육의 비참한 상태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낡은 착취 사회에 있어서의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의 이러한 기계적 분리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완전히 청산되였다.

그것은 우리 사회주의 제도 자체가 이것을 요구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생산의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새 기술이 련'이어 도입되며 계속 기계화, 화학화, 자동화에로 나아간다. 여기에서는 손로동, 육체 로동이 점차 경감되고 기계에 의한 기술 로동, 정신 로동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그러므로 협소하고 국한된 전공 지식만 가지고서는 현대 기술 발전에 적응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생산을 관리할 수도 없다. 과학의 최신 성과들을 포괄한 넓은 일반 지식과 이에 기초한 현대 기술 지식 즉 전공 지식을 소유함으로써만 이를 감당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가장 귀중한 재보로 간주하면서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시종일관 투쟁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를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일반 지식을 충실히 소유시키는 동시에 전공 지식도 훌륭히 습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청년들의 학습을 생산과 결부시키며 실지 생활과 결합하는 방침을 일관하게 실시하였다.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을 충실히 결합하여 학습할 데 대한 요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절박한 생활 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 ×

일반 지식과 전공 지식을 모두 충실히 학습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공 지식에만 편중하고 일반 지식을 홀시하는 경향과 전공 지식의 학습을 게을리하는 이 두 개의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동시에 일반 과목 학습과 전공 과목 학습에 각각 응당한 시간과 노력을 배정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이며 목적 지향성 있는 학습 계획에 의해 학습하지 않으면 부지불식 간에 일부 과목 학습에 편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과목과 전공 과목 학습을 언제나 밀접히 관련시키면서 학습하는 태도와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우선 모든 과목 학습을 당 정책과 결합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례를 들어 측량학의 전공 지식을 배울 때 수학 지식을 심화하기에 힘쓰며 물리와 력학을 학습할 때 이 리론이 자기가 전공하는 공작 기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찾아 내고 밝혀 내면서 공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일반 과목과 전공 과목 학습에서 호상 도움이 되며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쓸모 있게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매개 과목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그 지식을 실천 활동에 적용할 수 있게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동무들은 일반 과목 리론은 외우기만 하면 되고 전공 과목에서는 실험 실습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 된 생각이다. 당 력사와 철학, 정치 경제학에서도 질의 응답과 토론, 견학 등이 반드시 요구되며 전공 실습도 많은 소득을 준다.

전공 부문에서도 과학 기술 지식과 결합된 기술 기능의 습득이 요구되며 생산 로동과 결부된 과학 리론적 지식도 다 같이 충실히 배워야 한다.

전 당이 학습하며 전체 일'군들이 학습할 데 대한 호소를 받들고 혁명하는 사람에게 첫째가는 임무인 학습을 위해 모든 지혜와 정열과 노력을 다한다면 일반 과목이나 전공 과목 학습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농촌 기술 혁명의 초병들은 이렇게 자란다

덕성군 니망지리 민청 단체에서는 1960년부터 1963년까지 4 년 동안에 31 명의 기사, 기수를 양성함으로써 농촌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하여 이런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가?

먼저 기술 학습 체계를 세웠다

청년들 속에서 기사, 기수 양성 사업을 리 민청 위원회가 직접 틀어 쥐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당 중앙 위원회 1960년 8월 전원 회의 이후부터였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여도 청년들의 기술 학습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한 데로부터 리 민청 위원회는 이 문제를 개별적 위원에게 일임하다 싶이 하고 잘 해서 회의 때에 호소와 강조나 하는 정도에 그치였었다. 결과에 민청 4 차 대회 이후 어느 리보다도 맨 먼저 기술 학습 문제를 들고 나와 끓기는 하였으나 근 4 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기수도 양성하지 못 하였던 것이다.(물론 일부 과목 합격자들은 있었다.)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 결정 실행 대책을 토의하면서 이 사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리 민청 위원회는 리 당 위원회의 직접적 지도 밑에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였다.

우선 기술 학습 체계를 세우는 문제가 중요했다.

리 민청 위원회는 리 내 모든 민청원들의 준비 정도를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한 기초 우에서 그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 수준을 전반적으로 한 계단씩 높이기 위한 전망 계획을 세우는 데 착수했다. 이에 앞서 리 민청 위원회는 초급 민청 단체 단위로 당 중앙 위원회 1960년 8월 전원 회의 문헌 연구 토의 사업을 조직하고 그 정신에 립각해서 매개 민청원들로 하여금 개별 목표들을 세우게 하고 이것을 초급 민청 단체 총회 결정서에 반영시켰다.

리 민청 위원회는 이 개별 목표들에 기초하여 1965년까지 년도별로 되는 기사, 기수 양성 전망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학습망도 개편하였다.

처음에는 강사 문제, 장소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민청원들의 지식 수준에는 관계 없이 희망하는 청년들을 일률적으로 망라시켜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수준이 어린 동무에게나 또 높은 동무에게나 다 불리하였으며 극히 제한된 인원 밖에는 망라시킬 수 없었다.

그리하여 리 민청 위원회는 리 내 민청원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기초 지식이 미약한 동무들은 근로자 중학교에 망라시켜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게 하였으며 초중을 졸업했거나 그와 동등한 수준에 있는 동무들은 전문 및 고등 기술 학교 통신망에, 고중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진 동무들은 3 년을 기한으로 하는 민청 기술 학습반이나 대학 통신 학부에 망라시켰다.

그 후 점차 기술 학교 졸업생이 많아지고 또 기술 검정 시험을 통해 기수 자격을 받은 동무들의 대렬이 장성함에 따라 기술 학습반을 기수반(주로 기술 학교 졸업생들로 구성)과 기사반(이미 기수 자격을 받은 동무들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기술 학습반은 매주 4 회 여름에는 저녁 8시부터, 겨울에는 저녁 6 시부터 작업이 끝나는

대로 모여서 3 시간씩 학습했다. 통신에 망라된 동무들도 수준별로 되는 통신 학습반을 조직하여 강사의 지도 밑에 일상적으로 집체적인 학습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

재롭게 전망 계획을 세우고 학습 체계를 개편한 것은 사업의 첫 발'자국을 뗀데 불과했다.

일부 청년들은 시간이 없다느니, 일이 힘들다느니 하면서 학습을 게을리 하는가 하면 《공부를 하자면 주간이나 통신에라도 다녀야지 그까짓 기술 학습반에나 망라되여 검정 시험을 쳐 가지고는 쓸 데 없다》고 하면서 학습을 포기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심지어 통신망에 망라되여 한 학기도 채 다니지 못 하고 그만 두는 동무들도 있었다.

이런 편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민청원들에게 왜 우리가 기술을 배워야 하는가를, 기술을 배우는 것이 기술 혁명 시대에 사는 청년들 앞에 부과된 가장 영예로운 혁명적 과업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일하면서도 능히 배울 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했다.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하나의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으로써 민청원들을 교양하는 방법이였다.

이를 위해서 리 민청 위원회는 초급 민청 단체별로 8월 전원 회의 결정 재침투 사업을 조직하는 한편 전형이 될 수 있는 몇몇 동무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방조를 주었다.

주 청자 동무는 본래 고중을 졸업한 후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농촌에 진출하여 초기에는 일도 잘 하고 공부도 잘 하던 동무였다. 그는 이미 몇 과목에 걸쳐 검정 시험에 합격까지



했었다. 그러나 결혼한 후부터 점차 학습 열의가 식어져 나중에는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한것은 가정 살림을 하면서 공부를 하자니 시간도 부족했고 또 중요하게는 가정 부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무엇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였다.

리 민청 위원회에서는 개별 교양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 학습을 하도록 고무해 주는 한편 기사 주 진범 동무에게 위임하여 그의 학습을 적극 도와 주었다. 서적들도 구해다 주고 정상적으로 찾아 가 개별 지도도 하였다. 의식적으로 리 민청 위원장, 부위원장 등 열성자들이 자주 그를 찾아 가 고무도 해 주었다.

민청 조직의 극진한 관심과 방조는 그의 심장에 불을 지펴 놓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금 학습에 달라붙었다. 불을 때면서도, 설겆이를 하면서도 그는 부뚜막에 책을 펼쳐 놓고 공부를 하였다. 일하러 다닐 때나 작업의 쉴참에도 그의 손에서 책이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어린애를 업고 북청 고등 원예 학교로 시험을 받으러 다녔다. 그리하여 끝내 농장적으로 제일 선참 기수 자격을 받게 되였다.

리 민청 위원회는 주 정자 동무의 모범적인 학습 경험을 리'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대책을 취했다.

벽보와 속보 등 직관 공작을 통하여 그의 학습 방법과 경험을 광범히 소개 선전하는 한편 전체 민청원들을 참가시키고 성대하게 기수 자격 수여식도 조직했다. 또한 초급 민청 단체별로 총회를 열고 그의 모범을 본받아 모두가 속한 시일 내에 기사, 기수로 될 것을 결의하게도 하였다.

긍정적 모범은 큰 감화력을 가진다. 처녀도 아닌 두 아이를 가진 가정부인이 자습으로 맨 먼저 기수가 되였다는 사실은 비단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장원들에게까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청년들 속에서 학습 열의는 높아졌다. 종전까지만도 주저하거나 포기하려던 동무들이 신심을 가지고 다시 머리를 싸매고 학습에 달라붙게 되였다. 리 민청 위원회는 그 후에도 주 정자 동무의 경험과 함께 일제 시기 소학교도 나오지 못 한 4 초급 민청 단체 부위원장 조 무히 동무가 자습으로 기수가 된 것을 비롯하여 우수한 동무들의 학습 경험을 광범히 보급 일반화하였다.

리 민청 위원회는 초급 민청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는 데도 심중한 주목을 돌렸다.

먼저 과수 4 초급 민청 단체에 모를 박아 지도 방조하여 경험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였다.

리 민청 위원회의 지도 밑에 이 초급 민청 단체에서는 민청원들의 기술 학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신 및 기사, 기수반 등 학습망에 망라된 민청원들 별로 학습조를 조직하고 일상적으로 함께 학습하게 하였으며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에서 이를 수시로 총화하였다.

또한 기술부 반장 조 무히 동무가 책임지고 통일적 계획에 근거하여 작업 현장에서 학습하는 체계를 세웠는 바 사전에 제시한 쩨마들을 가지고 조별로 토론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력이 높은 동무들이 낮은 동무들을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도와 주게 하였다.

작업 배치에서는 반드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월 2 회씩 당면한 영농 문제들과 개별적인 동무들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기술 전습회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현장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하도록 취한 대책은 매우 효과적이였다. 이 초급 민청 단체에서는 이미 7 명의 기수를 양성했다. 4 초급 민청 단체의 경험은 곧 일반화되였다.

민청원들이 지난 기간 기술 학습반에 흥미를 못 가지였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강의의 질이 높지 못 한 데 있었다.

리 민청 위원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사 주 진범 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강사 그루빠를 조직하고 학습 진도나 제강은 반드시 강사 그루빠에서 집체적으로 토론하고 리 당 위원회와 리 민청 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진행하는 제도를 세웠다.

이것은 강사들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며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였으며 학습 진도를 계획 대로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리 민청 위원회가 리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기수, 기사 양성 사업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리에는 3 명의 기사를 포함한 31 명의 기사, 기수—대기술 집단이 재로 자라 났다. 이들 중에는 근로자 중학교로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기수가 된 한 칠호, 송 영환 동무들도 있다.



지금 농장의 15 개 작업반의 기술부 반장은 모두 젊은 기수들이다.

이 뿐이 아니다. 지금 리 내에는 통신 대학생이 13 명, 고등 농업 학교 통신 학생이 66 명이나 있으며 18 명의 동무들이 기사반에서, 59 명의 동무들이 기수반에서 공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리 민청 단체에서는 많은 경우 기사, 기수 양성 수'자에만 관심하고 배운 지식을 생산 활동에서 써 먹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 주의를 적게 돌렸다.

따라서 민청원들의 학습은 단지 기수 자격을 받기 위한 학습에 그치고 농장의 생산 활동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청년들의 기술 학습에 대하여 시답지 않게 여겼다. 공부하는 청년들 자신들도 그리 흥미를 가지지 못 했다.

민청원들의 학습을 실제 생산 활동과 결합시켜 이미 배운 지식을 산 지식으로 체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영농 작업에서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농장의 생산에 기여함은 물론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리 민청 위원회는 우선 첫 단계로 시험 포전을 운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기사 주 진범 동무의 지도 밑에 기술 학습반원들은 시험 포전에서 자기들이 배운 지식에 기초해서 대담하게 선진 영농 방법들을 시험하여 보았다.

그들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실시해 오던 《3단 주지법》을 비롯해서 전정, 적과 등 낡은 과수 비배 관리 방법들을 대담하게 뒤엎고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여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그들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초기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이 사과나무만 못 쓰게 만든다.》고 펄펄 뛰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기술이라는 게 좋긴 좋구만.》 하면서 모두 기술 학습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백 번 말하는 것보다도 실천으로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더 힘 있는 법이다.

시험 포전 운영에서 달성한 성과는 청년들에게 신심을 주었다. 청년들은 더욱 열성을 내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김 명갑 아바이를 비롯해서 항상 자기의 오랜 경험만을 고집하면서 기술 학습을 등한시하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기술 학습반에 망라되여 열성적으로 공부하게 되였고 생산에 지장이 있다고 학습 조건을 잘 보장해 주지 않던 일부 농장 관리 일'군들도 적극 지지해 나섰다.

리 민청 위원회는 리 내 청년들의 지식 수준이 제고되고 기술자 대렬이 장성함에 따라 기술 학습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이미 기수로 된 동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개 동무들이 실제 농장의 영농 작업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매해 년초에 제마를 주고 그것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초급 민청 단체들에서는 그들의 연구 사업을 수시로 총화하고 방조를 주게 했다. 그리고 매해 년말에는 리'적인 과학 기술 토론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1년 간 연구 사업들을 총화하였으며 우수한 경험과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지체 없이 전 농장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실례로 고 병일 동무가 근 2년간에 걸쳐 연구하고 시험한 《과수원에서 화학 비료의 가을 시비》 문제는 격년 결과를 극복하며 사과의 수확을 높이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지금 전 농장에서 그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조 영숙 동무가 시험한 《감자 습처리》 방법은 감자의 단위 당 수확고를 2 배나 높이면서도 그의 숙기를 1 주일 이상 단축함으로써 토지 리용률을 높이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조 무히 등 많은 동무들이 현재 과수나 농산 작업에서 걸리고 있는 절실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협동 농장 내 청년 기술자들은 생산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고 있다.

× ×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1965년까지의 전망 계획을 세웠는바 이에 의하면 통신 교육망을 통해 4 명의 기사와 67 명의 기수를, 검정 시험을 통하여 4 명의 기사와 27 명의 기수를, 도합 102 명의 기사, 기수를 새로 양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작업반장으로부터 분조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사, 기수로 꾸려지게 되며 매 작업반에서 평균 9 명의 기사 기수가 일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은 훌륭히 수행되고 있다.

덕성군 니망지리 민청 위원회
위원장 **조 성하**

청년생활 소사전

동물도 색을 가린다

동물이나 식물이 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례하면 젖소우리나 양계장에 스피카를 설치하고 음악을 계속 연주했을 때 착유량이 많아지고 산란률이 높아졌다.

그런데 최근 동물이 색도 가릴 줄 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실험에 의하면 암탉은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알을 잘 낳지 못하는 암탉에게 분홍색 쁠라스트마스제 안경을 끼웠더니 알을 아주 잘 낳게 되였다고 한다.



파리는 푸른 색을 몹시 싫어 하는데 젖소우리 안을 푸른 뼁끼로 전부 칠했더니 파리들이 덜 모여 들어 젖소의 착유량이 5~7%나 높아졌다고 한다.

만필

호랑이 없는 골에서는 삵이도 으시대는가?

오 홍 태

요새 서울에서는 박 정희가 군복을 신사복으로 갈아 입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이름에서 《권한 대행》이라는 꼬리를 떼여 버리는 《취임식》을 했다.

하여튼 워싱톤이 예정한 프로그람 대로 벌어진 꼭두각시 연극이였으니까 처음부터 뻔한 놀음이였지만 그 《취임식》 광경이 너무도 해괴 망측한 것인즉 몇 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 때는 일본 군도를 차고 만주 벌판에서 칼부림을 했고, 해방 후에는 자리를 바꾸어 《유 에쓰 에이》 총'자루를 메고 화약내를 풍겼고 2 년 7 개월 전에는 야밤에 칼을 물고 한강 다리를 건너 와 《정권》 도적을 했고 그 때부터 오늘까지는 제법 저 이상이 없노라고 포고령과 특례법에 총칼만 내흔들던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니 《호랑이 없는 골에서는 삵이가 대장 노릇한다》는 속담도 있기는 하지만 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그것도 겨우 36%의 표를 만들어서 《당선》이 됐다고 하니 아무리 그래도 36%짜리 《대통령》으로야 코'마루가 간지러울게 아니겠는가!

코'마루도 코'마루거니와 그 《대통령》 감투라는 게 일생을 두고 왜놈 전투모와 양키 철갑모만 써 오던 박 정희의 머리에 맞기나 하는지…그런데 이런 놀음을 하겠으면 뒤'골방에서 가만히나 할 노릇이지 겁에 질려서 포수들이 가진 렵총까지 걷어 들이는 주제에 북치고 장고치고 야단법석할 멋이야 어디 있는가.

물론 미국에서처럼 네거리 한복판에서 대통령을 사냥하는 사람이 있지나 않을가 해서 사냥총들을 걷어 들이는 그 심정은 충분히 리해할 수 있지만 그쯤한 심정이라면 《손님》까지 청해 올 필요가 있는가. 미국 상전도 청해 오고, 일본 상전도 모셔 오고 하다 못해 송장내 풍기는 장 개석패나 남부 월남의 해'강아지까지 데려다 놓고는 밤마다 술'상을 벌리면서 《외빈이 많이 모여 와서 제법 흥성거린다》고까지 떠들어 댔다.

그런데 그 《손님》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족보를 좀 캐 보기로 하자!

우선 그들이 제 1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미국에서는 하와이 주지사를 필두로 박 정희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무슨 아버지라고 부르던 밴플리트라는 코레라 장군과 리치웨이라는 패전 장군들이 몰려 들었고, 일본에서는 침략의 척후병 오노 반보꾸가 들어 왔다.

글쎄 박 정희의 애비가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나타났는 데 이게 대체 무슨 놈의 집안 안이기에 애비가 이렇게도 많은가 말이다. 어느 쪽이 진짜 애빈지 또 둘다 진짜 애빈지 하는 것은 박 정희네 족보를 훑어 봐야 알 노릇이지만 하필이면 양키들이 박 정희의 애비'벌되는 패전 장군들과 하와이 주지사를 단장으로 골라 보낸 리유는 또 뭔가? 이것이야말로 미국에서 하와이가 50 번째 주로 됐은즉 남조선은 다음 차례로 51 번째로 만들어 보겠다는 수작과 무엇이 다른가?

그럼 다음에 박 정희와 오노 반보꾸가 부자지간의 인연을 맺던 얘기를 좀 해 보자.

바로 작년 이맘 때 이 오노라는 일본 군국주의 척후병이 서울에 나타났는데 박 정희는 너무도 황공해서 연회를 베풀고 술'잔을 올려 바치다가 오노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통에 기세가 올라서 옛날 만주 벌판에서 하던 식으로 량 손을 번쩍 쳐들고 《대일본 제국 만세》를 웨쳤다. 옛날 리 완용과 같은 역적도 매국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손을 떨더라는 얘기가 있지만 글쎄 이 자는 우리 인민의 둘도 없는 원쑤에게 《만세》까지 불렀으니 이런 역적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 때 오노는 너무 기뻐서

《헤헤, 우리들은 형제 간이야.》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박 정희는

《네? 천만에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자지간

입니다. 아버지 한 잔 드시지요.》 하고 아들이 될 것을 자청해 나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에 오노는 일본을 떠나면서 《아들의 경사》가 어떠니 저쩌니 흰소리까지 쳤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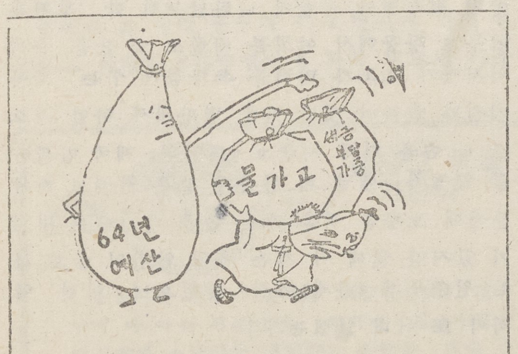
글쎄 집안이 망할라면 삽살이가 절구통을 뒤집어 쓰고 지붕 꼭대기까지 기여 오른다더니 나라를 팔아 먹다 못 해 나중엔 제집 족보까지 팔아 먹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헌데 박 정희가 애비로 모시는 오노란 자는 지난 16일 남조선에 기여 들어 연 사흘 동안에 걸쳐 아들과 이마를 맞대고 쑥떡공론을 했는 데 그의 내막인즉 매국 흥정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 치우자는 것이였다.

이 오노로 말하면 오래 전부터 미 제국주의자를 등에 업은 일본 사무라이들의 야망을 대변하여 대만과 남조선을 포함한 《대일본 합중국》을 만들겠다고 꿈꾸어 온 세련된 강도이다. 그러니 남조선 사람들이 일제의 재침 흉모에 격분을 금치 못해서 침략의 척후병 오노 반보꾸를 당장 몰아 내라고 시위를 단행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런 주제를 해 가지고 구색을 갖추노라고 그랬는지 박 정희는 제법 훈패 놀음마저 했는데 25만 원짜리 순금으로 무슨 훈장을 하나 만들어서 제 목에 걸고는 심지어 애비'벌되는 벤플리트와 리치웨이 등 패전 장군들에게까지 하나씩 달아 주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매국 놀음에 훈장이 어울리기나 할 노릇인가!

칼을 물고 한강 다리를 건너 와서는 제 어깨에다 제 손으로 별을 두 개씩이나 주어 달고



◇신년 선물?◇
«어마! 정말 이러기요?»
= 남조선 «경향신문»에서=

자칭 《대장》이노라고 우쭐대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되자 훈장부터 주어 걸기 시작하였다. 군복에다는 별쪼각을 주어 달고 신사복에다는 패쪼각을 주어 달기 시작했으니 얼마 있으면 패란 패는 모조리 주어 달지나 않겠는지?

그런데 그건 그렇다치고 양키 패전 장군들에게는 무슨 훈장을 달아 주는가. 칼부림을 시키고 《대통령》감투까지 씌워 주었으니 감사하다는 것인가? 아들이 훈장을 다는데 아버지가 못 달면 도리에 어긋 난다고 부자지간의 례의를 지켜 그러는 건가?

박 정희는 이 번 북치고 나발 불고 오른 손까지 번쩍 쳐들고 무슨 맹세라는 것을 하고는 제법 《취임사》라는 것까지 했는데 그 《취임사》 내용인즉 더욱 해괴 망측하였다.

《취임사》라는 데서는 《단군 성조》가 어떻다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탄생하는 새 공화국》이 어떻다고 《단군》으로부터 하나님까지 모조리 끄집어 내면서 미사려구들을 주어 맞췄으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도는 한 마디도 없었다.

문학 소녀의 시 구절처럼 《용솟음치는 분발》이요, 《우렁찬 전진》이요, 《우람찬 새 아침》이요, 《희망의 피안》이요 하고 떠들었으나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주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은 통 없다.

그러니 지금 백성들은 일'자리가 없고 배가 고프고 물'가가 올라서 살아 나갈 수가 없는데 《우람찬 새 아침》이니, 《희망의 피안》이니 하는 당나귀 하품 같은 소리를 먹고 살아 갈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박 정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3.1 정신이 어떻고 4.19 정신이 어떻고 하면서 《자주 정신》에다 《자주 자립》까지 떠들었다.

설사 열 벙어리가 말하는 한이 있어도 박 정희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일본 《천황》의 《적자》로 자처해서 일본 군도를 차고 거들먹거린 과거의 행적이나, 일본 침략의 척후병인 오노 아버지 앞에서 《대일본 제국 만세》까지 웨친 박 정희 만큼 3.1 정신을 모독한 사람이 어데 또 있는가. 왜놈의 아들에게 3.1 정신이 무엇이며 4.19 희생자 유가족들을 유치장에 가두고 4.19 살인 원흉들은 형무소에서 석방하는 자에게 있어서 4.19 정신이 도대체 뭔가! 또 박 정희가 말하는 《자주 정신》은 뭐고 《자주 자립》은 또 뭔가?

바지 저고리 다 벗어 주고 자주는 뭐고 주체는 뭔가. 《자주 자립》을 떠드는 사람이 《외군 철수》와 평화 통일을 주장한 사람을 《국시 위반》으로 잡아 넣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식민지 굴레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는 《자주》라고 떠들고 양키 《원조》를 구걸하는 주제에 《자립》을 떠들고 왜놈 앞에서 호자호부로 아들 노릇을 하면서 《주체》를 떠든즉 여기에 무슨 《자주 자립》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주체가 있는가. 양키와 왜놈의 2중 아들이 된 놈이 감히 자주를 떠들게 됐으니 과연 기가 막히고 입이 쓰거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린즉 백성들에게는 계속 《내핍》만 하라는 것이다. 제놈들은 대통령 감투를 썼다고 한 상 차리고, 미국에서 상전이 왔다고 한 상 차리고, 일본에서 의부'아비가 왔다고 워커힐에서 한 상 차리고 조카 사위가 감투 썼다고 한 상 차리고, 처남이 《국회 의원》됐다고 한 상 차리고 청와대로 집들이 한다고 한 상 차리고 아침 저녁으로 연회요, 만찬회요, 파티요 하면서 죽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백성들 보고는 《내핍》을 하라구? 그런즉 백성들은 공기만 먹고 살란 말인가. 게다가 미국 빵쪼각과 왜놈들의 다꾸왕 쪼각이나 먹는 놈이 《일대 혁신 운동》이고 무슨 《근대화》고 떠벌렸다니 정말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질 노릇이다.

게다가 또 《반공》을 해서 《승공》을 한다구, 《반공》하던 놈들은 《승공》하기에 앞서 모조리 백골로 되여 버렸는데 이건 철간모를 중절모로 바꿔 쓰더니 이 번에는 해골바가지를 써 볼 생각이 나는 모양인가.

이쯤 하고 보면 박 정희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가치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희극적인 것은 미국 대통령 존슨이 박 정희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로되 《박 정희가 총에 맞아 죽은 케네디와 약속한 대로 군정을 민정에로 넘긴 데 대해서 본인은 만족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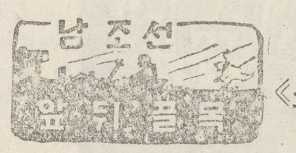
하기야 저들이 지휘하고 조종한 대로 박 정희가 식민지 대통령 감투를 썼으니까 만족할 테지.

자, 그렇다면 《민정 이양》이란 어떻게 되였으며 박 정희가 도대체 누구에게 정권을 넘겨 주었단 말인가?

제가 주고 제가 받고, 제 입으로 넘겨 준다고 했다가 제가 가로 채고…이게 대체 무슨 이양인가.

그런즉 양키들이 말하는 《민정 이양》이라는 것은 결국 군복 입은 박 정희를 신사복으로 갈아 입히는 그것이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양키놈들의 작간이였다는 것을 명백히 폭로해 줄 따름이다.



《소도구》 사건

최근 서울에서 있은 일이다.

어느 날 《화신 백화점》의 옥상으로부터 길 가는 사람들의 머리 우에 숱한 종이'장이 흩어져 내렸다. 어디선가 《돈이다!》 하는 웨침이 터졌다. 그러니 가뜩이나 《못 살겠다》, 《군정이고 민정이고 다 걷어 치우고 백성부터 살리라》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복이 떨어졌냐고 와그르르 모여들 밖에…이리하여 《화신 백화점》 앞은 순식간에 서로 밀고 닥치고 복닥이는 사람들로 하여 일대 수라장을 이루었다. 한편 이 정보를 받은 《치안국》에서는 불야불야 경보를 울리고 경찰들을 풀었다.

《이게 웬 돈이냐? 앙!》

군사 깡패들은 눈이 뒤집혀 이리저리 뛰여 다니며 호통을 쳤다. 이 때 《화신》 옥상에서 한 사나이가 내려 오면서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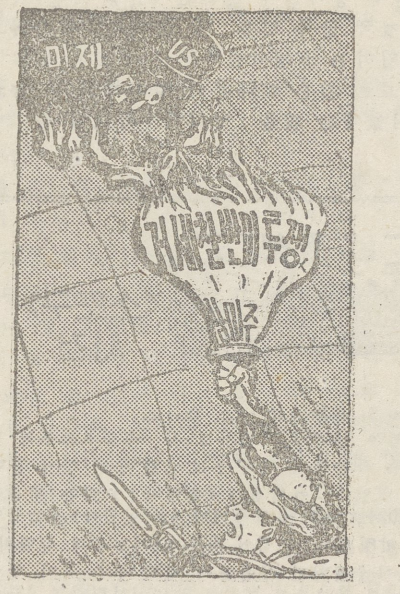
《저 경관님! 저는 영화사에서 일합니다. 이것은 화페가 아니라 영화를 찍기 위해 화페처럼 만든 〈소도구〉인뎁쇼.》

그 바람에 멋 적어진 군사 깡패는 《에헴》 하고 기침을 하고 나서 우정 위엄을 돋구며 《왜 한국 화폐의 존엄성과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말이야, 다시 한 번 그러면 용서하지 않을 터이다》하고 말았다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의 내막인즉 이렇다.

이것은 《지옥은 만원이다》란 영화에서 《악마》가 돈을 뿌리면 가련한 군중이 그것을 좇는 한 장면을 찍기 위해 영화사가 꾸며 낸 《기만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영화를 찍으려고 군중을 동원시키자니 막대한 《동원비》를 치루어야 하겠는데 돈은 없고 또 빚을 내여 영화를 찍어 낸댔자 본천도 못 건질 판이니 요즘 흔히 《정객》들이 하는 투로 슬쩍 화폐 모양의 《소도구》를 만들어 《기만술》을 썼던 것이다.

하긴 화폐 란발이 범람하여 가래 떡 한 가락 사도 종이에 싸 줄 대신 돈에다 싸 줄 정도로 화폐의 가치가 폭락된 오늘의 남조선 형편에서 이런 《소도구》의 소동쯤은 그리 기괴한 일도 아니려니와 또 이런 곳에서 《화폐의 존엄성》을 운운하는 자체부터가 우습기 짝 없는 노릇이 아닌가!



폭풍 휘몰아치는 베네주엘라

최 시 환

혁명의 거창한 물'결이 라틴 아메리카 온 대륙을 휩쓸고 있다.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은 바야흐로 뿌리 채 뒤흔들리고 있다. 도처에서 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잡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한 싸움의 길에 나섰다.

베네주엘라 인민은 무장 투쟁의 길을 따라 미 제국주의와 반동 괴뢰 정권에 강력한 타격을 주고 있다. 오늘 베네주엘라는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불도가니로 화하고 있다.

양키의 략탈에 신음하는 땅

따뜻한 베네주엘라의 넓고 기름진 땅에는 석유, 철, 금, 석면, 금강석, 망강, 수은 등 다종 다양한 보물들이 무진장 매장되여 있다. 예로부터 《원유의 나라》로 알려진 이 나라의 석유 매장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2 위, 수출에 있어서는 단연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매년 평균 1억 5천만 톤 이상의 석유가 생산된다. 이것만 하여도 670여만 명의 이 나라 인민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기에 넉넉하다.

그러나 19 세기 말 20 세기 초에 베네주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친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풍부한 자원을 닥치는 대로 략탈하여 갔다. 미제가 베네주엘라의 석유 공업과 철광 공업 부문에서만도 라틴 아메리카 전 대륙에서 얻는 전체 리윤의 50% 이상을 짜내고 있는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양키들이 얼마나 많은 이 나라 자원을 략탈하여 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미제의 이러한 야수적인 략탈로 말미암아 베네주엘라 인민들은 기름진 땅과 무진장한 자원을 가지고도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고 있다.

1960년 한 해 동안에 베네주엘라에서는 1만 4천여 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었으며 지금 27만 7천 명 이상이 만성적인 아사 지경에서 헤매고 있으며 70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항시적으로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농민들의 처지도 참혹하다. 《사람들은 토지가 없어서 경작하지 못 하고 토지는 사람이 없어서 묵는다》라는 베네주엘라 농민들의 말은 그들의 생활 형편을 그 대로 잘 말하여 주고 있다. 1.5% 밖에 안 되는 미국인들, 지주 및 농장주들이 경작지의 79%를 장악하고 있다. 결과 토지는 묵고 있으나 농민들이 자유로 경작할 땅은 없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베네주엘라 인민들 앞에는 오직 원쑤들과 싸우는 길 밖에는 없었다.

무장 투쟁—이것은 정확한 길이다

《형제들이여! 일며나라!
네 희망하는 모든 것들은
네 자신의 두 손만이 이루리라!
일어 나서 싸우라!》

인민들을 투쟁에로 부른 베네주엘라의 한 시인의 이 웨침은 이 나라 인민들의 쓰라린

생활 체험을 통하여 얻은 귀중한 교훈이였다.

처음에 집회와 시위 등 일련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활 처지를 개선해 보려던 베네주엘라 인민들의 투쟁은 수포로 돌아갔다. 미제와 베탕쿠르 도당은 인민들의 평화적인 진출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던 것이다. 인민들은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그것도 야수적인 탄압을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베네주엘라 인민들은 마침내 손에 무장을 들고 파쑈 테로 통치에 항거하여 일떠셨다.

1962년 초에 싼크리스토발시에서 일어 난 제 1 차 로동자 파업은 곧 무장 봉기로 전환되였으며 같은 해 5월과 6월에는 베네주엘라의 가장 큰 해군 기지인 카르파노와 푸에르토 카벨로 항에서 수천 명의 해병들이 반정부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두 차례의 무장 봉기에 참가한 수 많은 투사들은 무기와 탄약을 비롯한 전략 물자들을 로획해 가지고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이 밖에도 괴뢰 군대 내의 많은 군관, 병사들이 탈주하여 유격대에 참가하였다.

유격 투쟁은 1962년 6월에 공산당을 비롯한 혁명적 정당들로 조직된 《민족 해방 전선》의 지도 하에 민족 해방군이 창건된 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였다.

작년 2월 13일 베네주엘라 민족 해방군은 3천 127 톤급 화물선 《안조 아테귀》호를 나포하고 미국 항공대와 베탕쿠르 함대의 추격과 위협을 물리치면서 해상에서 7 일 간이나 용감히 견지하였으며 지난 해 7월 25일에는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플란트 감옥을 습격하고 620 명의 정치범들을 해방시키는 혁혁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최근에 민족 해방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석유 회사 송유관 등을 폭파하고 수도 카라카스에 육박하여 정부의 내무성 건물 대부분을 소각하고 방송국까지 일시 점령함으로써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있다.



이리하여 베네주엘라 민족 해방군은 전국의 20 개 주 중 11 개 주와 주요 도시 및 농촌을 활동 무대로 삼고 싸우고 있으며 팔콘주를 비롯한 일련의 주들에는 이미 《베네주엘라의 자유로운 령토》로 불리우는 유격 근거지가 창설되였다.

오늘 베네주엘라 인민은 지나 온 승리의 로정을 돌이켜 보면서 명확한 결론을 짓고 있다. 《이미 출발한 길—이것은 정확한 길이다. 무장 투쟁은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다》라고.

청년들은 싸움의 전초에 서 있다

베네쥬엘라 청년들은 조국 강토에 원쑤들이 침입한 첫날부터 정의로운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으며 이 투쟁에서 끓는 청춘의 기개를 남김 없이 발휘하였다.

청년들은 투쟁의 불'길 속에서 자기의 조직을 창건하였으며 오늘 공산당의 령도를 받는 공산주의 청년 동맹과 민주 정당의 청년 단체들은 《반독재 통일 전선》과 《대학생 전선》에 튼튼히 결속되여 투쟁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들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중요한 도시들에 투쟁 지휘소를 설치하고 삐라를 살포하며 송유관을 폭파하고 매판 자본가들의 기업소들을 습격하고 있다.

청년 애국자들은 수차에 걸쳐 려객기들을 나포하고 수도 상공에서 반정부 삐라들을 살포하였으며 수도 방송국을 장악하고 베탕쿠르 정부의 전횡을 폭로 규탄하는 격문을 발표하여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다.

미제와 베탕쿠르 도당들은 이러한 진출에 질겁하여 닥치는 대로 청년들을 탄압 학살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주엘라의 중앙 대학을 비롯하여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각급 학교들을 폐쇄하고 청년 학생들의 반정부 진출을 가로 막으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원쑤들의 횡포한 탄압도 이미 택한 투쟁의 길을 따라 굳건히 나아가는 청년들의 억센 투지를 꺾을 수는 없다. 최근에 와서 베네주엘라 청년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대통령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은 수도 상공에서

(시)



하느님의 중압 밑에서

(베네주엘라) 카로스. 아우크스트. 레옹

하느님의 중압 밑에서
주인의 중압 밑에서
모진 고통, 고독의 중압 밑에서
벗이여, 그대는 등뼈마저 굽었구나
미풍에 휘여든 푸른 풀처럼
그대는 너무도 온순하게 살았구나
저기 저 고요히
말 없이 선 나무 줄기처럼
형제여, 분연히 일어 서라
웨치라, 호소하라, 항의하라
그대 고통 끝 없고 또 침묵한다면—
너를 보는 내 마음 갈갈이 찢기리

하느님이 아니란다, 남들에겐 땅을 주고
그대에겐 호미를 준 그는
하느님이 아니란다, 그대에겐 기아를 주고
남들에겐 향연을 베풀어 준 그는
벗이여 하느님이 아니란다
그대에게 땅 줄 사람은
그대가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대의 손에 달렸다
그것도 다른 곳 아닌 이 고장에서
과실라에서 타이엘라※
이 땅의 그 어디서고 벗이여
분연히 일어 나라! 형제여

※ 과실라는 베네주엘라의 동쪽 끝. 타이엘라는 서쪽 끝이다. 여기서는 전 베네주엘라를 가리킴—역주

적 비행기를 나포하여 트리니라드도에 착륙시켰으며 삼엄한 경계를 뚫고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실로 오늘 베네주엘라 청년들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전투 위훈으로 하여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인민들은 민족 해방군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자유 직업자, 애국적 군인들로 구성된 민족 해방군은 각계 각층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성과적으로 싸우고 있다.

각급 학교들은 유격대의 튼튼한 보루로 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유격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거나 유격대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수도 주변의 빈민굴에 살고 있는 35만 명의 주민들은 유격대의 후비군으로서 그들의 투쟁을 적극 돕고 있다. 농민들도 자원하여 유격대의 길을 안내하여 주는 등 유격대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유격대에 대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전투 승리에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바로 민족 해방군이 정부군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도시의 15층 건물에서 무려 수주일 간씩 전투를 진행할 수 있은 것도 인민들의 지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인민들은 불의에 원쑤들의 땅크나 자동차를 전복시킴으로써 유격대들이 그것을 바리케트로 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

오늘 전국을 진감하는 베네주엘라 인민들의 무장 투쟁의 승리적인 공세에 직면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태는 미국 어용 통신 에이피까지도 《베탕쿠르 정권을 타도하고 베네주엘라를 제 2 큐바로 전변시킬 데 대한 본격적인 혁명이 개시되였다.》고 비명을 지르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그 어떠한 최후 발악도 베네주엘라의 이 혁명적 격류를 가로막지 못한다. 싸우는 베네주엘라 인민들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잡지명 청년 생활 제 1 호 (루계 172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 평 양 인 쇄 공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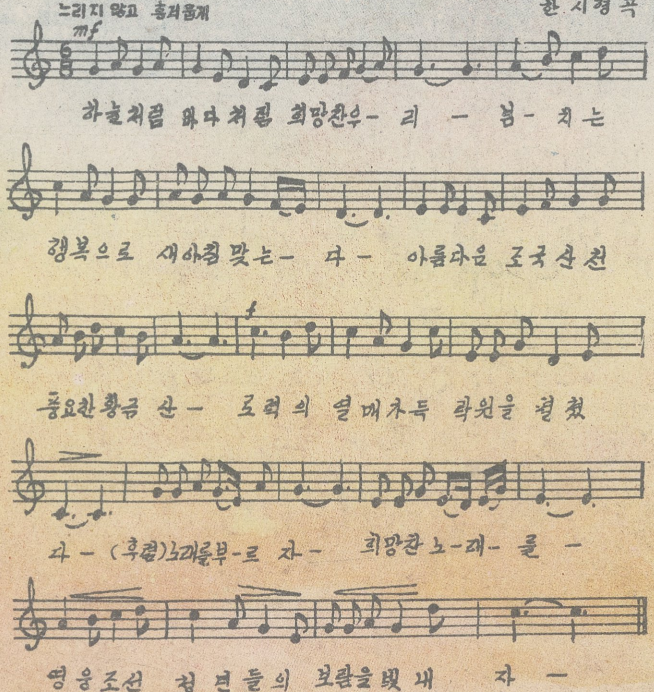
인쇄 1964년 1월 16일 발행 1964년 1월 20일

7—330846 값 45 전

정기 간행물
번호제13653호

희망찬 새아침

박세영 시
한시형 곡



2. 번개처럼 달려가는 천리마 조선에
승리의 새 아침은 금'빛을 뿌린다
로동당의 후비대 민청원 우리들
놀라운 기적으로 나래를 펼쳤다
후렴

3. 아름다운 우리 생활 더 좋은 래일로
조국의 번영위해 우리들은 싸운다
가슴마다 흘러 넘고 자랑찬 이 행복
어두운 남녘에도 새 아침을 밝히자
후렴

